Weekly 공감
2011.05.25 NO.110
gonggam.korea.kr



베이비붐 세대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P23~42

중점기획 봉사·도전을 즐기는 대한민국 청소년들 P16~21

'탱크' 최경주 "나는 코리안 골퍼다" P12~14

베이비붐 세대여 어깨를 쫙 펴라



한경혜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전쟁이나 극심한 경제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 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현재 전체 인구의 14.6퍼센트 정도인 약 7백13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 거대한 인구집단이 노년기에 진입하면 세수 감소, 재정 악화, 부양부담 증가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명 1백세 시대에 진입한 현실에서 베이비붐 세대들도 늘어난 노년기의 삶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대중매체에서 소개하는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모습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인가?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는 정말 암울한가? 최근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현실과 미래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 체계적 교육을 받은 첫 세대로, 4분의 3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높은 학력의 소유자다. 산업화를 이끈 주역으로서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가진 세대이기도 하다. 중년이 되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이미 늙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긍정적 태도와 발달적 잠재성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과밀 세대로서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도전하며 살아남은 세대로서 가지는 특성이라고 하겠다. 베이비붐 세대의 일원이기도 한 필자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모습도 이러한 연구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 체계적 교육을 받은 첫 세대로 높은 학력의 소유자다.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자긍심과 성취감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대의 특성은 활기찬 제2의 인생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는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현역'이다. IMF 경제위기,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와중에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던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노동시장에서 '완전은퇴'하여 손 놓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직업만족도 또한 높다.

현재의 노년층이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늘어난 노년기를 살아가는 세대라면, 아직 중년에 속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들의 노년기에 대해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인생 2모작의 필요성을 알고,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앞날은 충분히 낙관적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노년기 삶의 질에 있어 '준비된 베이비붐 세대'와 그렇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들에 따르면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점은 성공적 노화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니 베이비붐 세대여, 힘내서 우리의 노년기가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G

Contents NO.110 2011.05.25 통권 211호



기획특집

베이비붐 세대들! 은퇴가 아닌 제2의 출발

7백13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국가적, 사회적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취업, 신세대 멘토, 재능 기부 등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지속적인 사회 기여를 해야 하며 연금, 역모기지, 건강 관리 등 이들 세대를 위한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



표지 이야기 '탱크' 최경주가 지난 5월 16일 미국 플로리다 주 폰테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TPC 스타디움코스에서 끝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연장경기에서 우승한 후 환호하고 있다. 3년여 만에 우승한 기쁨이 그의 얼굴에 번지고 있다. 사진·AP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5.2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08


52


54

| 중점기획 | 날아라! 청소년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26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대통령 유럽순방 보며 희망 싹터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 기사를 읽으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대통령이 3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코펜하겐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개소식 참여 등 녹색외교에 힘쓰는 모습이 특히 와 닿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선진화된 의식을 갖고 외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보다 세계 속에서 빛나는 선진한국이 될 것입니다.”

정승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평창에 국민성원을 보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공식 후보도시 조사 평가 보고서에서 강원도 평창이 라이벌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를 제치고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평창이 경쟁 도시들보다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적 지지가 엄청난 차이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강점으로 작용할 게 분명합니다. 개최지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6일 IOC 총회 최종 투표에서 결정되는데, 반드시 평창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을 보냈으면 합니다.”

김미라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G20세대들의 도전 정신에 박수를

“10개월 동안 세계 16개국을 여행한 이지은씨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대학생 이지은씨의 당찬 도전정신이 놀랍습니다. 이씨가 3대륙 16개국 여행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G20세대는 미래를 향한 원대한 포부와 역동적인 힘을 가진 자랑스러운 신세대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세계로 시야를 넓혀 많은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자신의 성장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송재하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사진전 통해 5 · 18 민주화운동의 아픔 느껴

“5 · 18 민주화운동 31주기 김은주 사진전을 소개한 기사에서 ‘광주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담기 위해 사회적 유명인사가 아닌 평범한 어머니들을 모델로 했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5 · 18 민주화운동을 겪은 어머니들의 사진을 통해 당시 평범한 시민들도 갑자기 닥쳐온 재앙처럼 큰 아픔을 당했다는 사실이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흥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대구세계육상대회’ 관심 업! 기대감 업!

“대구세계육상 D-100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시원하고 생동감 넘치는 사진과 ‘대구로… 대구로 달려온다’는 기사 제목이 잘 어우러져 평소 육상에 관심없는 저도 눈이 절로 갔습니다. 경기장 밖 준비상황을 통해 대구가 행사준비에 열심인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활기찬 사진과 기사를 보니 힘이 나네요. 미리 보는 육상 스타들을 통해 기대감을 안겨준 좋은 기사였습니다.”

구슬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이 기사, 아쉬워요

“청년창업 때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으로 청년창업과 같은 기사가 나오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획특집에서 잘된 창업의 예시와 성공한 창업자들의 이야기만 다룬 점이 아쉬웠습니다. 창업 시 실패할 수 있는 유의점이나, 미숙한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조언 또는 보완점을 함께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송혜림 (대학생,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FTA 보완대책 수혜자 얘기도 듣고 싶어”



한 · EU FTA비준안 마무리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번 FTA가 자동차와 IT 업계 수출에 효자 노릇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피해예상 업종 추가대책에 대한 기사량이 너무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보완대책의 수혜자를 인터뷰했었더라면 더욱더 피부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김현주 (주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알립니다

경복궁 수정전에서 목요특강이 열립니다



문화재청은 아름다운 궁궐 속 명사와 함께하는 '경복궁 수정전 목요특강'을 연다. 이번 특강은 경복궁 수정전에서 5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90분간 총 5회에 거쳐 진행된다. 특강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과 강사들의 친필 사인회도 가질 예정이다.

특강 장소 | 경복궁 수정전 전각 내부
특강 시간 | 5월 26일~6월 23일, 매주 목요일, 15:00~16:30(총 5회)
참여 대상 | 일반관람객 60명(매 회)
참여 방법 | 경복궁 홈페이지(www.royalpalace.go.kr) 사전예약시스템 이용
유의 사항 | 경복궁 홈페이지에서 예약증 출력 후 제시하면 무료출입 가능, 강의 시작 20분 전까지 수정전 입실 완료

특강 일정

회 차	강사	강의 제목
1회 (5.26)	황동규/시인	문학의 속 모습
2회 (6.2)	신봉승/작가	조선왕조실록과 선비정신
3회 (6.9)	신경림/시인	시를 읽는 즐거움
4회 (6.16)	황병기/국악인	황병기의 가야금 이야기
5회 (6.23)	박정자/연극인	박정자의 연극이야기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042-481-4747 www.cha.go.kr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삐'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전화료 약 1백40원

문자 투표 | '제주' 'jeju' 'JEJU' 중 택1 하여 문자 작성 후 001-1588-7715로 전송.

자세한 내용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공식블로그(blog.naver.com/7wondersjeju)' 참고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바로잡습니다 5월 18일자 109호 53쪽 사진설명을 '쌍계사는 진감선사 대공탑비(국보 제47호), 국사암 뜰의 천연 느릅나무 등이 볼 만하다. 사진은 쌍계사 경내의 9층석탑'으로 바로잡습니다.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5월 31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3.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OOO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에 OOO 문화가 달라졌다."
5. 잠 자거나 누울 때 머리에 무엇을 괴죠?
6. 하지 않던 일을 새로 하여 갑작스러운 느낌이 들게. "그의 말솜씨에 OO 놀랐다." OO스레.
8. 웃어른 앞에서 자기 남편을 낮추거나 예스럽게 이르는 말.
9. "강원도 OO이 2018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테크니컬 브리핑이 끝나고 선두주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세 로

1.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
2.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일곱 빛깔의 띠.
4. 올빼미과에 속하는 여름새.
5.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6 · 25전쟁이 끝난 1955년 전후에 나타났죠. 이 무렵 태어난 사람들을 이것 세대라 부릅니다.
7.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창.

〈Weekly 공감〉 108호(5월 4/11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세모시 **4** 공정 **5** 오라기 **6** 고리 **8** 가정의달
세로 **1** 납세 **3** 시오리 **4** 공기업 **6** 고속정 **7** 수달

〈Weekly 공감〉 108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건호 · 충남 보령시 성주면
김진영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박창환 · 전남 신안군 장산면
안치오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이택근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G20국회의장회의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테러 근절, 자연재해 예방, 원자력 안전 강화, 최빈국 개발 등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서울 G20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테러 위협에 맞설 국제안전망 만들자"

G20국회의장회의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지난 20일 폐막했다. 핵심의제인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6개국 의회 정상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지금 인류는 원전 사고와 글로벌 자연재해, 빈곤과 테러 등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G20 국가들의 의회가 글로벌 공조를 긴밀히 가동할 때 G20정상회의의 성과를 내실화시키면서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울 국회의장회의가 안전한 세계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박희태 국회의장)

G20국회의장회의가 '안전한 지구, 더 나은 미래(Safe World, Better Future)'라는 구호 아래 지난 18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국과 중국, 브라질, 호주, 인도, 프랑스, 미국, 영국 등 26개국이 참여해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을 위한 국제 공조 전략을 논의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백지장을 맞드는 심정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자"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들은 지구촌이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 일본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원자력 사고, 기후변화, 테러, 초국가적 조직범죄 등이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테러는 생명권 침해하는 중대 범죄" 규정

무엇보다 테러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알 카에다의 지도자인 빈 라덴이 사살된 후 테러의 위험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들은 "테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각국 의



조선DB

"아프리카는 앞으로 구체적인 공동의 개발 목표를 가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험 공유와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장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의 '동반성장'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서울G20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등 G20 개발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선진국의 다양한 개발경험이 최빈국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지식공유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선언문은 "개발 격차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인간을 위한 동반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며 "미래 우발사태들에 대비한 예방 메커니즘의 개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대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동의 예방과 구호가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국회의장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유엔의 기본원칙과 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기초로 테러와 해적행위를 포함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테러단체들에 의한 핵물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국제적인 조치들의 개선에 기여할 권고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저개발 국가의 빈곤을 퇴치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 마주키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은 "테러는 빈곤 복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며 "빈곤문제의 해결과 테러에서 벗어났을 때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팔레오마베가 미국 하원의원은 저개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에 대한 각종 투자는 경제 및 사회안정 측면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무력분쟁을 완화하고 평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의회는 모든 개인 및 기업이 개도국에 대한 투자 등을 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도국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에티오피아의 카싸 상원의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원받는 국가의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원자력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구축 협력

먼저 원자력 발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불궈진 사안이다. 국회의장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을 달성하고 원자력 안전, 정보교환, 대처능력 구축, 비상체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각국의 참여도 권고했다. 2010년 멕시코 칸쿤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UN의 기후변화 협상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 조속히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최빈국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뜻을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1차 G20국회의장회의에서 결정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제안한 회의의 정례화가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한국이 차기 개최국으로 선택됐다. 2012년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G 글·변형주 기자



피겨여왕 김연아가 지난 5월 18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테크니컬 브리핑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뒤 활짝 웃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아의 꿈, IOC 위원들에 '강한 인상'

동계올림픽 테크니컬 브리핑… 평창의 운명 7월 6일 남아공 더반서 결판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프레젠테이션은 개최도시 선정 투표에 앞서 전체 IOC 위원들에게 후보도시들이 공개적으로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16 하계올림픽 유치 때에는 테크니컬 브리핑의 프레젠테이션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평창의 프레젠테이션은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제가 어린 시절 올림픽에 대한 꿈을 키워 금메달을 땄듯이 평창은 아시아의 어린 선수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18일 스위스 로잔 올림픽뮤지엄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펼친 '피겨여왕' 김연아는 유창한 영어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자신의 꿈을 전달해 큰 박수를 받았다.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에 이어 세번째로 무대에 오른 평창은 조양호 유치위원장,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피겨여왕 김연아, 나승연 대변인, 이병남 평가준비처장 등 6명이 브리핑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프레젠테이션 도입부에 2분45초 분량의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뤄낸 발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로 국제 스포츠 발전을 이끈 점 등을 영어로 설명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브리핑을 마친 조양호 유치위원장은 "아시아에서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열겠다는 평창의 명분과 당위성을 IOC 위원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박용성 대한체육

회장도 "프레젠테이션이 2014년 올림픽 유치 때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정부 대표로 프레젠테이션을 펼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려했던 것과 달리 까다로운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 대다수 IOC 위원이 아주 우호적이었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처음엔 너무 긴장했는데 끝나고 나니 대부분 잘했다고 덕담을 해줘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김연아, 유창한 영어로 '꿈' 전달 큰 박수 받아

영국의 크레이그 리디 IOC 위원은 김연아의 발표에 대해 "매우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했고 내용도 훌륭했다"면서 "평창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건희 IOC 위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선 특임대사 등도 IOC 위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갖는 등 후방지원을 했다.

평창은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분단 극복 등의 좁은 주제를 넘어 아시아 전체 및 동계 스포츠 불모지 국가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New Horizons'이란 슬로건을 내건 것도 평창올림픽이 아시아 전체 동계 스포츠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김성환 장관은 한국과 비동계 스포츠 국가 청소년들이 참가한 '드림 프로그램'의 성과를 설명했으며, 향후 약 5천1백4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평창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자 게하르트 하이베리(노르웨이) IOC 위원과 이가야 치하루(일본) 위원은 "평창이 앞선 두 번의 유치 신청 때보다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면서 높이 평가를 했다고 대표단이 전했다. 이번 '로잔 브리핑'에는 전체 1백10명의 IOC 위원 중 88명이 참석했다.



연합

지난 5월 14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국민대합창' 행사가 열렸다.

가장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펼친 뮌헨은 1936년 이후 독일이 80년 동안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뮌헨은 또 이날 동계올림픽 경기에 필요한 토지를 모두 확보했다는 내용의 뉴스도 발표했다. 뮌헨은 그동안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칸다하르 활강코스 결승선 쪽 일부분의 토지를 구입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고 IOC의 조사 평가보고서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독일의 토마스 바흐 IOC 부위원장은 "프레젠테이션 결과에 만족한다. 현재까지는 뮌헨이 레이스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평창의 강력한 라이벌로 손꼽히는 뮌헨의 경우 독일 바이애슬론 간판선수인 마그달레나 노이너가 브리핑에 참석했다. 노이너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10킬로미터 추적과 12.5킬로미터 집단 출발에서 우승을 차지해 2관왕에 올랐고 7.5킬로미터 추적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한 스타플레이어다. 뮌헨은 또 동계올림픽 피겨 2관왕을 달성한 카타리나 비트가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로잔을 찾아 유치를 호소했다.

로게 위원장 "세 도시 모두 인상적 프레젠테이션"

두번째 프레젠테이션을 한 안시 유치위원회는 친환경 인프라와 리조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동계올림픽의 유산과 이를 통한 경제적 발전 및 전 세계 젊은이들의 스포츠 참여 확산을 역설했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후보도시 브리핑이 끝난 뒤 "오늘 세 후보도시 모두 아주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며 "이번 브리핑을 통해 IOC 위원들과 후보도시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개최도시 선정 투표에 앞서 전체 IOC 위원들에게 후보도시들이 공개적으로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16 하계올림픽 유치 때에는 테크니컬 브리핑의 프레젠테이션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지난해 6월 뮌헨, 안시 등과 함께 2018년 후보도시로 선정됐던 평창은 이번 로잔 브리핑을 끝으로 공식 유치행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의 개최지 투표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G

글 · 서일호 기자

사회 고질병 '전관예우' 뿌리 뽑는다

퇴직 판검사와 공직자의 수임 활동 · 로펌행 제한하는 법개정안 발효

지난 5월 17일 개정된 변호사법이 발효됐다. 퇴직 판사와 검사의 변호사 수임 활동을 제한하고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린다.

부산 서민들의 울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로 예금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부산저축은행을 초토화시켰고 결국 영업정지에 이르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과정에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점이다. 불법을 감시해야 할 금감원 공무원들이 불법을 눈감아 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 의뢰를 묵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과 대대적인 혁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금감원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번 기회에 퇴직 공무원과 판사, 검사 등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조선DB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판사와 검사, 공무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한 개정 변호사법이 발효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청사.

지난 5월 17일 발효된 개정 변호사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 판사와 검사,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먼저 판사와 검사,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변호사의 퇴직 후 수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전까지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담당 변호사로서는 물론 공동수임과 간접수임도 금지된다.

제2의 '저축은행 비리' 예방… 공직자 신뢰회복 기대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신 전관예우'로 불리는 퇴직 공무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이 자신이 소속됐던 기관과 관련한 소송에 관여해 판결에 힘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일정 퇴직 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하면 해당 법무법인은 취업자 명단을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매년 1월 말에는 퇴직 공직자가 관여한 사건과 업무활동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도 내야 한다.

취업자 명단과 업무내역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의회로 전달된다. 협의회는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법은 변호사 개업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해야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금지법' 시행 다음날 퇴임한 이동명 전 의정부지방법원장

"전관예우 첫 적용 개의치 않는다"

"후배법관에게 추월 되면 바로 다음날 사표를 내겠다는 평소의 '공약'을 지킨 겁니다."

이동명(54) 전 의정부지방법원장은 5월 20일 경기도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27년의 법관생활을 마친 뒤 "이제야 '말빚'을 갚게 됐다"며 웃었다.

그는 "'말빚'을 갚는 시기가 언제일지는 나 자신도 궁금했다"면서 5월 17일부터 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의 첫 적용자가 된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6일 이홍훈 대법관 후임(오는 6월 1일 퇴임)으로 사법연수원 12기인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이 임명제청되자 몇몇 고위 법관이 세대교체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용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연수원 11기인 이 전 원장이 가장 빨리 용퇴를 택했다.



이동명 전 의정부지방법원장은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신은 떠나도 사법부는 영원히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이 전 원장은 "대법관 인사 결정 소식을 들은 뒤 두어 시간 '번뇌의 구덩이'에 빠져 고민하다 용퇴를 결정했다"며 그렇게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인 9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표 수리 시기는 법원의 판단에 맡겼다고 한다.

"전관예우 문제 핵심은 브로커들의 과대포장"

경기고,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 고법, 서울 지법, 민사수석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신망을 쌓아온 그에게 현재 많은 사법연수원 제자들과 배석 판사들이 왜 이렇게 빨리 떠나느냐고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온다고 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 법관생활은 끝나지만 사법부는 영원하고 더욱더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 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신청한 김영준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지난 5월 18일 퇴직 발령이 났다. 이들은 각각 마지막으로 근무한 의정부지법·지검과 대구지법·지검 사건을 1년간 맡을 수 없다.

이 전 원장은 "사법계의 전관예우 문제는 사건 수임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전관예우를 과대포장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관'에 대해 가깝게 대하거나 예의를 갖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현역 법관은 전관예우를 해주기 위해 판결을 뒤집는 결정에 대해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관예우란 말이 생겨난 사법계보다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에서 보듯 금융 등 다른 분야의 비리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관 재직 당시 그가 담당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서울고법 판사 시절의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사건과 금성사 역사교과서 수정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키코사건에서는 '금융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제출한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좌파적' 결정을 내렸다. 금성사 교과서 수정과 관련해서는 저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좌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법파"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멋지게 살고 싶다"고 했다. 지난 1월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법조인 불자모임인 '서초반야회' 활동으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에게 점심제공을 하는데 이 같은 봉사가 그에게는 '멋진' 일이다. 오는 6월 서초동에서 갖게 될 변호사 사무실 개업식에서도 화환 대신 쌀을 받아 불우이웃돕기에 기증할 계획이다.

로마 정치인 키케로의 말에서 비롯된 좌우명에 따른 삶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옳은 일을 할 때와 그른 일을 할 때를 잘 알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항상 옳다고 여겨지는 일만 한다면 더 가난해지거나 덜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더 행복해질 것이다."

글·박경아 기자

'탱크' 최경주, 거침없는 질주

미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탱크'가 돌아왔다. 전남 완도 출신의 늦깎이 골프선수에서 출발해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이름 날리던 최경주가 3년여 만에 감격스런 우승을 하고 눈물을 보였다. 연습벌레라 불릴 정도의 열성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한국 남자골퍼의 PGA 성공담을 써 온 최경주의 부활 소식에 대한민국 남성들도 덩달아 신이 난다. 힘내라, 힘!

'탱크'의 부활은 짜릿했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한국 골프의 개척자인 최경주(41·SK텔레콤). 그가 오랜 슬럼프에서 벗어나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그간 마음고생을 드러내듯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에 눈시울을 붉혔다. 우승하고 운 것은 2002년 5월 컴팩클래식에서 처음으로 PGA투어 정상에 섰을 때 이후 처음이었다.

최경주는 지난 5월 16일 미국 플로리다 주 폰테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 TPC 스타디움코스(파72)에서 끝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13언더파 2백75타로 데이비드 톰스(44·미국)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 첫번째 홀에서 승리했다.

시즌 상금 랭킹 3위·세계 랭킹 15위로 점프

이 대회는 총상금이 9백50만 달러로 4대 메이저 대회보다도 많고 특급 스타들이 총출동해 '제5의 메이저'로 불린다. 최경주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 대회 챔피언에 등극하며 1백71만 달러(약 18억7천만 원)를 받았다. 2008년 1월 소니오픈 우승 후 침묵하다 40개월 만에 미국PGA투어 통산 8승째를 거뒀다. 시즌 상금 랭킹은 3위까지 껑충 뛰었다. 세계 랭킹도 15위로 점프했다.

5월 17일 SK텔레콤 오픈 출전을 위해 귀국한 최경주의 표정은 밝았다.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이동하는 항공기 안에서 만난 최경주는 "2만볼트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찌릿찌릿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2000년 미국PGA투어에 도전한 이후 그는 바꾸고 변신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를 하더라도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는 게 최경주의 지론이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은 이런 도전정신의 결과다.

최경주가 강조하는 스윙의 원칙은 '리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도선수 출신인 최경주는 미국에 진출한 초기만 해도 힘으로 밀어 붙이는 '후려 패는' 스타일의 스윙을 했으나 이를 고쳐 힘들이지 않고도 파워를 낼 수 있는 '리듬 스윙'에 훈련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최경주는 자신을 '필 플레이어(Feel Player)'라고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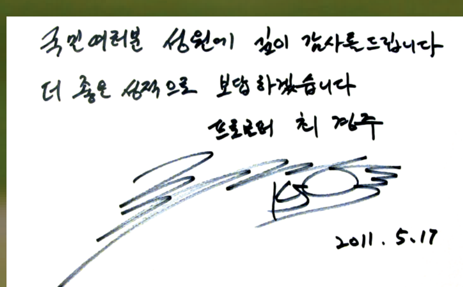
그는 "율동적으로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스윙이 나오고, 그런 점에서 나는 1백퍼센트 필 플레이어다"라고 말했다.

최경주가 한국과 일본 무대를 거쳐 미국PGA투어에 진출할 당시 주위에선 무모한 도전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시행착오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투혼으로 한국 골프의 역사를 번번이 새로 썼다.

어느덧 최경주는 미국에서도 지명도가 높아졌고 고정 팬들까지 생겼다. 이번 대회에는 '초이스 보이스(Choi's Bois)'라 적힌 단체 티셔츠를 입은 미국인 응원단이 등장해 화제가 됐다. 최경주는 "팬들에게 잘해 주고 '콩글리시'라도 최선을 다해 표현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좋아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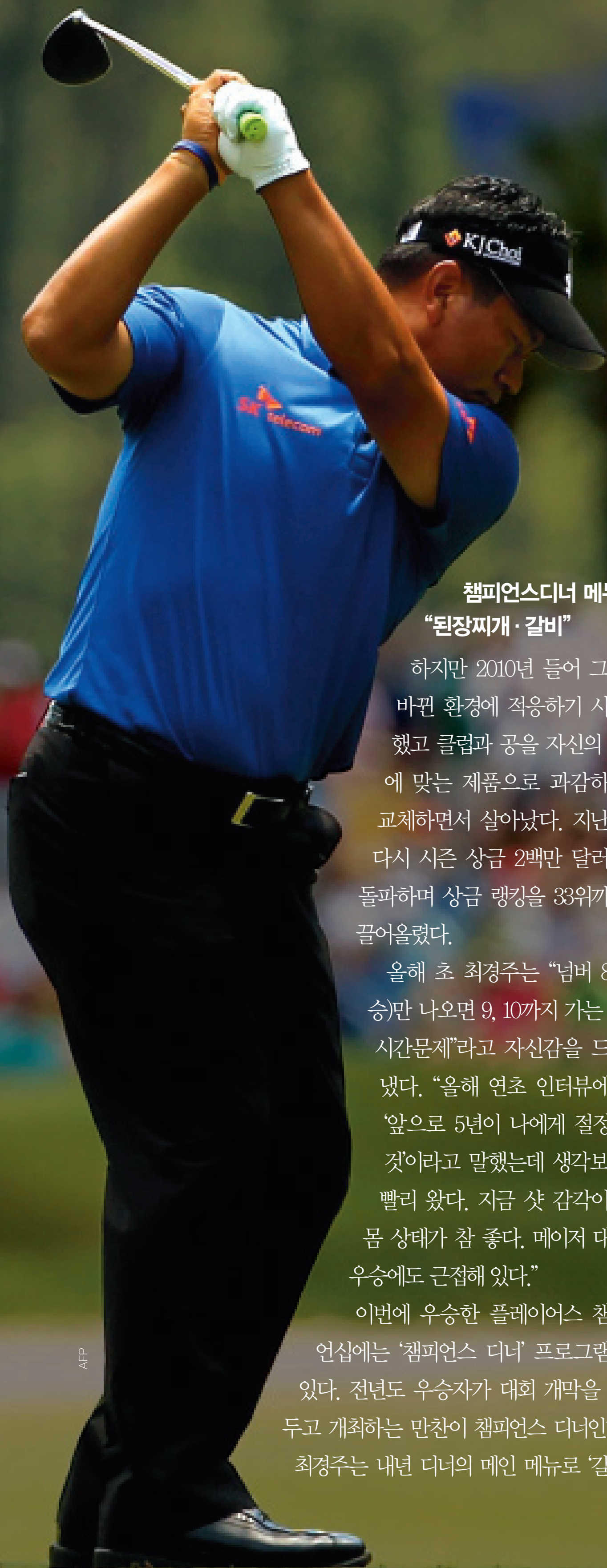
그는 이번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갤러리들과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다. 그의 팬 철학은 이랬다. "손 한 번 들어주는 것은 힘이 안 든다. 미소는 공짜 아니냐."

호적상 그는 5월 19일 41번째 생일을 맞았지만 실제로는 1968년에 태어나 43세다.



연합

그는 2007년 미국PGA투어에서 2승을 거두며 상금 랭킹 5위를 차지해 최고 시즌을 보냈다. 그래도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변화를 꾀했다. 체중을 줄이고 스윙도 변경했지만 결과는 나빴다. 2009년 9차례나 예선 탈락하면서 상금 랭킹은 93위까지 추락했다. 허리 부상까지 겹치며 황혼에 접어드는 듯했다.



AFP

챔피언스디너 메뉴 “된장찌개 · 갈비”

하지만 2010년 들어 그는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클럽과 공을 자신의 몸에 맞는 제품으로 과감하게 교체하면서 살아났다. 지난해 다시 시즌 상금 2백만 달러를 돌파하며 상금 랭킹을 33위까지 끌어올렸다.

올해 초 최경주는 “넘버 8(8승)만 나오면 9, 10까지 가는 건 시간문제”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해 연초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이 나에게 절정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다. 지금 샷 감각이나 몸 상태가 참 좋다. 메이저 대회 우승에도 근접해 있다.”

이번에 우승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는 ‘챔피언스 디너’ 프로그램이 있다. 전년도 우승자가 대회 개막을 앞두고 개최하는 만찬이 챔피언스 디너인데, 최경주는 내년 디너의 메인 메뉴로 ‘갈비버거(가칭)’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전통적이면서 외국 사람의 입에도 맞는 음식을 생각 중”이라는 최경주는 평생의 꿈인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하면 ‘전통 한식’으로 메뉴를 짜보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이전의 한 인터뷰에서 “청국장을 올리겠다”고 했던 최경주는 “솔직히 청국장은 무리다. 된장찌개에 굴비 백반, 갈비, 육회, 등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었다.

이번 쾌거로 자신의 다짐이 괜한 큰소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최근 4개 대회 연속 톱10 진입의 상승세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메이저 대회 우승의 꿈도 이뤄야 하고 10승 고지를 밟아야죠.”

다시 시동을 건 탱크의 진격소리가 우렁차기만 하다. G

글 · 김종석 (동아일보 스포츠레저부 기자)

미 토네이도 복구 지원에 20만 달러 기부

최경주는 ‘기부 탱크’다. 최경주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상금 가운데 20만 달러(약 2억1천6백만원)를 최근 미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 복구 지원금으로 쾌척했다. 지난해 아이티 지진 때에도 그는 2억원을 긴급구호금으로 지원했고 올해 일본 대지진 때도 10만 달러를 내놓았다.

최경주는 “일본의 지진해일 재난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토네이도 뉴스를 들었을 때 토네이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뭔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인생에서 결정적 순간을 맛보고 있던 그때, 인생 최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다.

2007년에는 최경주재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으로 꿈나무 육성과 자선사업을 시작했다. 국내에서 경기할 때도 상금을 기부해 온 최경주는 SK텔레콤오픈 1라운드가 열린 지난 5월 19일에는 스페셜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7명을 만나 훈련지원금과 골프용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경주와 캐디 프로저 9년째 '찰떡궁합'

"긍정마인드 심어준 아내이자 큰형"

최경주 선수는 지난 5월 16일(현지시각) 미국 PGA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이 확정된 뒤 캐디 앤디 프로저(60)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흐느꼈다. 올해 환갑을 맞았고 백발이 성성한 프로저는 최경주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흐뭇해했다.

최경주 선수는 우승 인터뷰를 통해 "캐디 앤디 프로저는 내 아내이자 큰형 같은 사람"이라면서 "내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나 농담과 긍정적인 격려로 즐겁게 해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프로저도 자신의 '보스'인 최경주 선수를 높이 평가했다. 프로저는 "KJ(최경주 선수의 영문 이니셜)는 신앙심이 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처럼 동요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문화 때문인지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내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치아가 좋지 않은 프로저가 큰돈이 드는 치료를 받을 때, 최경주는 별도로 개인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연합

지난 5월 19일 제주도 핀크스골프장에서 열린 SK텔레콤 오픈 2011 첫 라운드에서 최경주 선수가 티업을 하기 전에 캐디 프로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미·유럽 무대서 7승 합작… "한국에 18차례 왔다"

최경주와 프로저가 서로 인연을 맺은 것은 2003년 9월 유럽투어 독일 마스터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전까지 캐디를 여러 번 교체했던 최경주였는데, 프로저와는 '필드의 동반자'로 9년째 동고동락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프로저는 경력 31년의 베테랑 캐디다. 닉 팔도(잉글랜드)와 함께 1987년 브리티시오픈, 1989년 마스터스를 제패했고 콜린 몽고메리(스코틀랜드) 등 유명 선수들과 함께 유럽과 미국 투어에서 통산 29승을 기록했다. 그 가운데 최경주 선수와는 7승을 함께했다.

프로저는 13세 때 골프를 시작했고, 21세 때까지 런던 부근 골프클럽의 소속 프로 선수로 활동했다. 이후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던 프로저는 1980년 캐디가 되기로 결심했고, 2주 휴가를 얻어 유럽골프투어가 열리던 이탈리아 로마로 갔다. 그곳에서 닉 팔도가 캐디를 해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닉 팔도를 찾아가 "당신의 캐디가 되고 싶다"고 했다. 팔도의 임시 캐디로 채용된 프로저는 2주 후 팔도가 유럽 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하자 정식 캐디가 됐고, 2년간 그와 함께 경기를 치렀다.


AFP

제주 핀크스 골프장에서 열린 SK텔레콤오픈에서 그는 최경주에 버금가는 스타 대접을 받았다. 스코어카드 접수처에 그가 들어서자 인터뷰하려는 취재진이 대거 몰려든 것은 물론, 일부 갤러리도 사진을 함께 찍자며 달려들었다. 프로저는 "굉장히 피곤하다"면서도 한국 팬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친절히 응했다. 그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이번이 한국에 18번째 온 것 같다. 물론 최경주와 함께 일하기 전에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글·서일호 기자

110 Government Call Cente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정부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정부대표민원전화 110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 업무를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08:00~21:00 / 토요일 09:00~13:00
예약상담 www.110.go.kr, m.110.go.kr **휴대전화 문자상담** 110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게임은 그만… 1000원 공연 보러가자”

재능나눔·문화향유 기회 늘려… 인터넷 탓하기 앞서 현실적 대안 더 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이다. 5월 23일부터 29일까지는 ‘청소년 주간’으로 청소년 관련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올해 청소년 주간 기념식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관련한 실천서약 행사 등이 진행됐다. 청소년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한 번 제고되고 있다.

“친구들이랑 PC방에 게임하러 가요. 학원 가기 전에 마땅히 갈 데도 없고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Y고등학교 정문 앞.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에게 ‘어디 가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또 다른 무리의 학생들도 같은 대답이었다. 상당수 학생이 ‘겜방’(게임방·PC방)으로 간다고 했고 일부는 “청소년수련관에 포켓볼 치러 간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국 7천6백명(만 9~3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만 9~24세)의 인터넷 중독률은 12.4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을 더욱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좋든 나쁘든 ‘인터넷’이 청소년 문화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16세 미만 심야 게임 제한하는 ‘셧다운제’ 11월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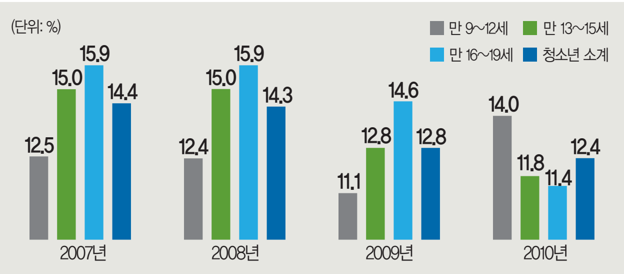
인터넷게임 중독은 우울증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터넷상에 무분별한 정보 노출은 청소년 모방범죄를 야기하기도 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청소년단체는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서초유스센터

구립서초유스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테마별 청소년축제 ‘발악’. 행사 관계자들은 “막상 청소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연장이나 무대 대관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청소년 인터넷 중독 조사 현황



*전국 만9~39세 7600명 표집조사 후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별도 집계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올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본 청소년에 대해 예방·상담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시작으로 각 청소년단체에서도 바람직한 청소년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소외계층 청소년 위한 '행복문화체험'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5월 23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약속운동'을 전개한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을 막고 건전한 사용 약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서명은 청소년건전인터넷문화조성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서명은 학교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고흥청소년우주센터 등 청소년 수련시설과 16개 시·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진행한다.

상대적으로 공연예술 경험의 기회가 적은 청소년에게 공연예술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함께 올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관객의 날'로 정해 청소년(만 9~24세) 관람객에게 지정작품에 한해 관람료 1만~5만원인 공연을 1천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연예술단체가 관람료의 20퍼센트를 부담하고, 청소년 관람객이 낸 1천원 외에 나머지 관람료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세종문화회관의 문화나눔프로그램인 '행복문화체험'은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올 3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2차례 공연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 각계에서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형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서울 구립서초유스센터 오유림 청소년지도사는 "최근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재능나눔과 자원봉사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청소년은 곧 인터넷 중독 또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보다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박근희 기자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약속운동'
온라인 서명 홈페이지 www.cleaninternet.or.kr
'관객의 날' 예매 및 문의·www.sati.or.kr
'행복문화체험' 문의·청소년전화 ☎1388 www.kyci.or.kr

전문가 한마디

청소년 문화활동 방향 '개념'을 바꿔라



지난 십여 년간 우리 문화는 급속하게 발전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폭과 깊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더 발전해야 함은 분명하다.

첫째는 활동의 깊이와 다양성이다.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의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이용률은 낮아진다. 학업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나이 많은 청소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참신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크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과 직접 대면하는 문화종사자들의 처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는 자율성이다. 수행평가나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면서 특별활동과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학입시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 문화활동도 마찬가지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활동을 통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제일 즐거운지 깨닫고 그걸 더 잘 즐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을 때 그 문화활동이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보장하면서도 엄격한 자기통제와 함께 성취도의 공증을 제공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같은 프로그램들을 문화 분야에서도 꾸준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글·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학원은 NO! 취미 살리고 진로도 찾고

전국 3백여 청소년수련관·문화의 집서 다양한 소질·역량 개발에 힘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3.6퍼센트, '방과 후 학교' 참여 비율은 55.6퍼센트로 나타났다. 교과목 보충 수업을 위해 학원으로 향하는 청소년도 많지만, 자기계발을 위해 수련관이나 수련원, 각종 청소년 활동 지원 시설을 찾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다.



이경호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청소년수련관의 주중 로봇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강사의 지도 아래 로봇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취미활동·자기계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오늘은 각자 만든 로봇자동차에 바퀴를 달아서 경주를 해볼 거예요. 서로 부딪혀도 상관없고, 코스를 따라 최종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청소년수련관 내 로봇교실. 초등학생들이 지도교사의 설명에 따라 각종 부품을 활용해 자신의 로봇을 열심히 조립하고 있다.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로봇과학자가 꿈"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과학자만큼이나 진지하다. 서현청소년수련관의 주중 로봇교실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주말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로봇동아리'가 운영된다.

로봇교실 담당자 이경현씨는 "수강생 중에는 단순 취미에 그치지 않고 로봇올림피아드 등 굵직한 국제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도 있다"고 전한다.

지하 2층 공연장에서는 장애청소년들의 사물놀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방과 후 책가방을 집어던지다시피 들어온 장애청소년들은 지도교사의 장단에 맞춰 북을 두드린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라는 사물놀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행동 장애나 자폐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열정적이다.

2011년 1월 1일 현재 전국 1백60여 개소의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 총 2백10여 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미 활동 프로그램 외에도 자기계발과 적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사업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의 다양한 소질과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개발과 한도희 전문위원은 "실제로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들도 많다"고 전한다.

조선DB



금천청소년쉼터에서 원예교육을 받고 있는 가출 청소년들. 가출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을 일시 보호하면서 직업훈련도 하고 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적성진로개발' 우수 사례로 꼽힌 마산 청소년문화의집 졸업생 김민석(중2) 군은 마산 청소년문화의집 진로교육을 통해 가구디자이너의 꿈을 꾸게 된 경우다. 민석이는 이후 재활용품 창작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구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석이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마산 청소년문화의집' 진로교육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게 됐다"면서 "꿈이 생기니 학교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석이는 진로를 찾은 것을 계기로 요즘도 틈틈이 마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만들기수업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수련관 외에 3곳의 국립청소년수련원을 포함 전국 1백74개소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방학 동안 '진로 적성 관련 캠프'를 진행해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 서울 서초유스센터와 같이 지자체 지원으로 위탁 운영되는 유스센터에서도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이나 특기 적성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쉼터

두드림존·미혼모대안학교 등 "다시 네 꿈을 펼쳐라"

두드림존이나 미혼모대안학교, 쉼터 등은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다. 그중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센터 부설기관 두드림존은 위기 청소년이나 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교정시설 및 보호시설을 나와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 새터민 가정·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의 사회 적응 및 자립지원을 돕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센터 측은 "그간 두드림존을 거쳐간 위기 청소년은 4년 동안 2만7천여 명에 이른다"면서 "그중 취업에 성공한 청소년은 3백63명, 검정고시 합격자는 5백9명, 직업전문학교 입학은 2백73명, 대학진학 1백53명, 여기에 복교와 학교제적까지 합하면 2천4백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센터는 16개 지자체에 16개의 상설 두드림존을, 20개소에 시범 두드림존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위탁교육시설이나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는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청소년 미혼모들이 임신 중에도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곳이다. 대부분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위탁 운영되는 형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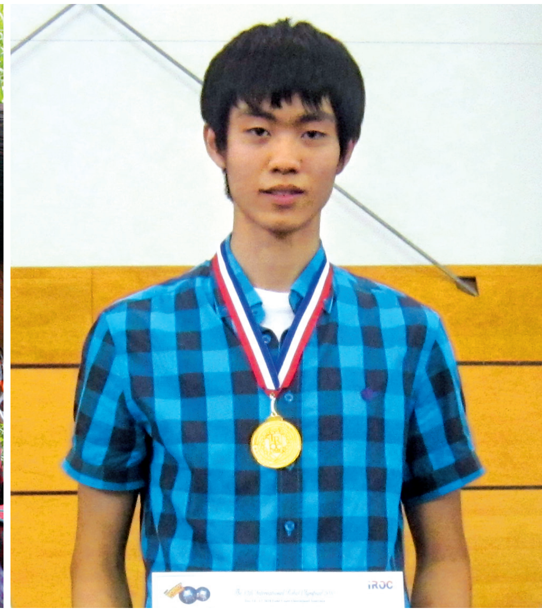
지난 2월 청소년 미혼모 첫 졸업생을 배출한 수원시 우만동 홀트고운학교는 입양전문기관 홀트아동복지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지원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미혼모를 포함 29명의 미혼모가 시설에 입소해 상담 치료나 임신·출산 교육뿐 아니라 정규 교과과정을 밟고 있다.

올 초 한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미혼모 위탁교육시설에 입소한 김나래(가명·17) 양은 "원치 않은 임신과 동시에 학업을 중단하게 돼 '모든 것이 끝났다'며 절망했는데, 이곳에 입소한 후 안정을 찾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꿈만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작년 11월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2008~2012)을 의결·확정한 바 있다.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가족의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정비 등 4대 분야에서 12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방과후학교, 동아리 등 적극적인 학교생활로 '모범청소년상'을 받은 전성집 군, 외국인 관광안내 등 꾸준한 자원봉사 실천으로 '모범청소년상'을 받은 이하영 양. '국제로봇올림피아드' 금상을 수상한 김동규 군(사진 왼쪽부터).

공부는 기본… 봉사·도전을 즐긴다

스포츠·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보여 '미래 유망주'로 뽑혀

건강한 청소년들이 떴다. 요즘 모범생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학교 공부만 잘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포츠·예능·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미래 유망주로 떠오른 모범청소년들을 만나봤다.

서울 윤중중학교 3학년 전성집 군은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이 표창한 '모범청소년상'을 받았다. '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아 여성가족부가 수여한 '모범청소년상'에는 성집이를 비롯해 전국에서 뽑힌 79명의 학생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모범이 될 만한 청소년이 대상이다.

윤중중 생활지도부장 황태호 교사는 "성집이는 지난해 2학년장을 맡았고 방과후학교, 동아리 등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해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학생들의 투표로 선출된 학년장은 모범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성집이는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해 매점에 준비물을 비치하고 급식실에 휴지를 설치했다"며 "사소한 것들이지만 친구들의 작은 불편도 적극 수용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전교 학생회장을 맡은 그는 피아노, 바이올린, 통기타, 노래 등에도 재능이 많다. 성집이는 자기계발을 위해 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통기타도 방과후 활동으로 배운 것이다.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1학년 때는 관현악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2학년부터는 밴드부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

자기계발 위해 학교 프로그램 적극 활용

성집이는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게 많다"며 장래 희망으로 피아니스트, 교수,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또 "이번에 받은 모범청소년상에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예일여자중학교 3학년 이하영 양은 모범적인 봉사활동으로 모범청소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영이는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적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봉사하고 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조선DB

다니는 친언니와 함께 서울 남산의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외국관광객들에게 영어로 관광안내 봉사도 한다.

하영이는 "평소 어머니께서 시간이 주어져야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찾아서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최근에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 자연환경 보호나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봉사활동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영이는 올해 전교 학생회장을 맡는 등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이다. 예일여중 장정미 교사(국어)는 "하영이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 친구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친구들 숙제도 잘 도와준다"며 모범청소년으로 추천한 이유를 밝혔다.

하영이의 꿈은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환경연구원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는 "평범한 학생인데 이렇게 상을 주셔서 떨리기도 하고 감사하다. 앞으로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모범청소년상 수상자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눈길을 끄는 청소년들이 많다. 경기도 수원하이텍고등학교 2학년 김동규 군은 마이스터고 유망주로 손꼽힌다. 수원하이텍고에서 전기전자제어를 전공하는 동규는 알아주는 로봇영재다. 지난해 호주에서 열린 '2010 국제로봇올림피아드'의 모바일로보틱스와 미션챌린지 부문에서 모두 금상을 차지했다.

꿈을 위해 일찍부터 현장활동에 나서기도

중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던 동규는 "이 학교에 입학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이스터고 입학을 결심했다고 한다. 실습 위주의 학교 수업과 함께 로봇동아리 활동을 하며 '로봇 제어 프로그래밍 전문가'라는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동아리를 지도하는 배상용 교사는 "동규는 어떤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자세가 강하다"며 "요즘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또 "동규가 로봇 프로그래밍에도 뛰어나지만 친구들의 공부도 잘 도와준다"며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이유를 밝혔다.

동규는 "제 꿈은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라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로봇을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요즘 한국의 모범청소년은 시대에 맞게 글로벌한 모범을 보인다.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1학년 두보예 양은 해외봉사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보예는 '국제활동가'를 꿈꾸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예가 처음 해외봉사를 다녀온 것은 고3 때였다. 2010년 1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해외봉사단에 지원해 중국 윈난성 대리란 지역으로 봉사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보예가 맡은 것은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 심기와 지역민 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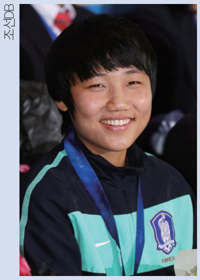
봉사 참여 후 세계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보예는 명지대 국제통상학부에 지원했다. 그가 가진 명확한 입학동기는 입학사정관제 면접에서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입학 후에는 교내 봉사동아리를 통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 여름방학에는 몽골로 해외봉사를 떠날 계획이다. 보예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단순한 식량지원이 아닌 세계 빈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G

글 · 이제남 기자

청소년 홍보대사 여민지 · 샤이니 민호

라디오 청소년 캠페인서 열심히 녹음작업


조선DB



연합

여자축구 국가대표 여민지 선수와 아이돌그룹 '샤이니'의 민호가 2011년 청소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5월 23일 열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주간 기념식' 행사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받았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이정현 사무관은 "여자축구대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민지 선수는 건강한 청소년의 귀감이 되고 있고 샤이니의 민호 역시 바쁜 연예활동 와중에도 충실한 학업 모습을 보여 모범이 되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 홍보대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한다. 둘은 이미 여성가족부가 5월 한 달가량 펼쳐온 '건강한 청소년' 라디오 캠페인 녹음작업에 참여했다. 라디오 캠페인에서 여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밥도 잘 먹고 잠도 충분히 자고 꾸준하게 운동했던 것이 축구 국가대표선수의 꿈을 이룬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샤이니의 민호도 "바쁜 스케줄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취미활동이나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가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간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응원했다.



APP 부문

2011 대한민국 스마트 미디어 앱 공모전

■ 앱 기획 부문

- 공모주제 DB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용 어플리케이션 기획
- 참가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인 포함)로 개인 또는 팀(9인 이내) ※ 단, 기업단위 참가 불가
- 접수기간 2011. 6. 27(월) – 9. 9(금), 11주간

■ 앱 개발 부문

- 공모주제 DB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 참가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인 포함)로 개인 또는 팀(9인 이내) ※ 단, 기업단위 참가 불가
- 접수기간 2011. 6. 27(월) – 9. 9(금), 11주간
  ※개발계획서는 마감 2주전(2011. 8. 26)까지 접수 완료하되 9. 9까지 수정 가능

■ UCC 제작 부문

- 공모주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등 스마트 미디어의 유용성을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 UCC
- 접수기간 2011. 5. 23(월) – 6. 24(금), 4주간 / 1차 심사 시 7편 선정 → 네티즌 평가 2011. 7. 11(월) – 7. 22(금)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smartapp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시상내역

UCC 제작 부문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200만원
	최우수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2명	각 100만원
	우 수 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4명	각 50만원
앱 기획 부문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200만원
	최우수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3명	각 100만원
	우 수 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4명	각 50만원
앱 개발 부문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3명	500만원
	최우수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3명	각 300만원
	우 수 상	KT 사장상	1명	200만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상	1명	200만원
		NHN 사장	1명	200만원
		전자신문 사장상	1명	200만원

문의 공모전 사무국 02-6911-6550, e-mail : smartapps@smartapps.or.kr

www.smartapps.or.kr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KDB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후원** kt Microsoft NHN 전자신문

기획특집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발전·가치창출의 자산

7백13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됐다.
기존의 노년층과는 다른 '뉴시니어층'인 이들은 앞으로도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실무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국가적, 사회적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취업, 신세대 멘토, 재능기부 등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지속적인 사회 기여를 해야 하며
연금, 역모기지, 건강 관리 등 이들 세대를 위한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
은퇴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 · 박용인

현업 지속·일 욕심 많은 '젊은 시니어'

학력과 건강 겸비… 자녀에게 부양 요구 안 하는 첫 세대 가능성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7백12만5천명을 말한다. 2011년 현재 48~56세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14.6퍼센트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 집단이다. 이들은 학력과 건강을 겸비한 '뉴시니어층'이고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에 끼인 '샌드위치 세대'이기도 하다. 퇴직연령대에 접어든 이들에게 '제2의 인생'을 향한 탈출구는 있을까?



지난 4월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견 전문인력과 구인기업을 연결하는 '베이비붐 세대 중견전문인력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중간에 끼인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또 노후라고 하면 지루하게 느끼고 사회에서도 소외당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도 활기찬 제2의 인생을 가꾸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미래는 그렇게 암울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연령대에 진입해서 향후 10년간 퇴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후 출산율이 급증한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둔화된 1963년까지 출생한 7백12만5천여명을 말한다.

2011년 현재 48~56세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14.6퍼센트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 집단이다. 이들은 학력과 건강을 겸비한 '뉴시니어층'으로 이전 노인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총인구 14.6퍼센트 7백13만명 달해

뉴시니어층인 베이비붐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노모어엉클(No More Uncle)족' '루비족(Refresh, Uncommon, Beautiful, Young)'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삼성경제연구소 안신현 연구원은 "뉴시니어층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일군 세대라 소비에도 익숙하고, 해외 대중문화도 많이 접해 문화에 대한 욕구도 높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는 1970~80년대 고도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그 어떤 세대보다도 직장에서의 일을 우선시했다. 또 이들은 서울 지하철 개통, 의료보험제도 도입, 국민연금 도입 등 다양한 인프라의 혜택을 받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주요 구매층이 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자가용을 보편화시킨 세대다. 프로야구·프로축구의 탄생, 대중음악의 다양화 등을 경험했고, 이전세대보다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뤘다. 이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초졸 8.7퍼센트, 중졸 16.7퍼센트, 고졸 46.1퍼센트, 대졸 이상 28.5퍼센트다. 고졸 이상이 75퍼센트에 육박한다.

2010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수는 5백53만1천명이고, 고용률은 75.5퍼센트다. 고용률은 이전 세대(59.5퍼센트)보다 높고, 현 주력 노동세대(1964~74년)와 비슷(76퍼센트)하다. 고용형태는 상용직(34.9퍼센트), 자영업자(21.2퍼센트)의 순이고, 상용직 중에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현업 지속 의지'(77.8퍼센트)와 '노후 일자리 희망'(63.9퍼센트)이 높게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일자리 희망사유는 '소득'(58.5퍼센트), '건강'(16.2퍼센트), '자기발전'(14.4퍼센트), '여가시간 활용'(7.5퍼센트), '사회·다른사람을 돕기 위해'(3.4퍼센트) 순이다.

은퇴 후 생활비로 월 2백11만원 예상

이들의 월평균 소득액은 3백53만원 정도로,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65퍼센트)이 주된 소득원천이다. 은퇴 후 생활비로는 월 2백11만원이 예상된다.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 연구소장은 "60세에 은퇴해 80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월 2백11만원을 생활비로 쓰면 적어도 4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산은 부동산(76퍼센트)과 금융자산(21.1퍼센트) 등 대부분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에 편중된 우리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구조는 자산관리의 원칙으로 보나,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 보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퇴직 시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의 목표를 50대 50 정도로 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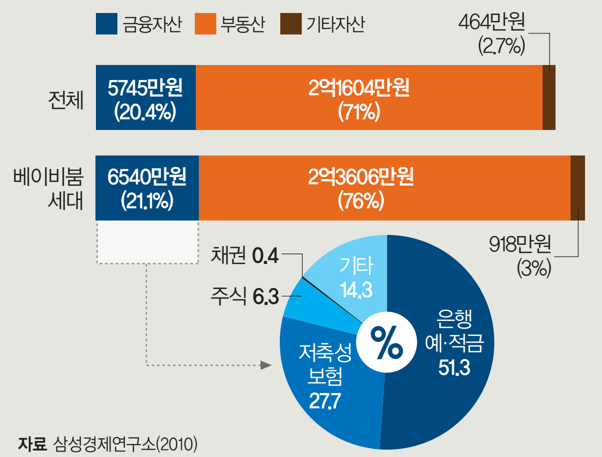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산은 3억1천63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2억8천1백12만원)보다 높다. 이들의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소비'(80.8퍼센트)가 가장 높다. 또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 '자녀가 취업을 미루고 더 공부하겠다면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한다.

노후일자리 희망사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자산 구성비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0)

하지만 이들은 만성질환,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그래도 상당수는 건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갱년기 증상으로 불편을 겪은 적 있음'(33.5퍼센트), '만성질환 있음'(27.1퍼센트), '우울증 있음'(10.2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68.5퍼센트가 운동을 하고, 59.7퍼센트가 건강식품 섭취를 하며, 80.8퍼센트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이전 세대에 비해 건강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향후 개선점 역시 거론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이전 세대들이 조기·명예퇴직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물러나면서 그 업무를 베이비붐 세대가 떠안게 됨으로써 업무의 과중과 함께 점차적으로 퇴직을 권고받는 계층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질환이나 중독, 과로, 사고사 등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더욱 정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G

글·서일호 기자

잘 아는 분야 틈새시장 노렸더니 '대박'

취미로 시작했던 게 사업아이템으로… 온라인 활용엔 자녀 동원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인 은퇴 시기에 접어들었다. 한때 우리 경제의 발전 중추였던 이들 가운데 많은 이가 달라진 사회 여건, 그리고 역할 기대에 어디로 가야 하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창업 전선에 나서 만족스러운 제2의 인생을 설계 중인 모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다.

헬스케어용품 유통업 조용준 대표

해외출장 중 급성장 시니어 시장서 아이템 찾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본 메디컬' 대표 조용준(56·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씨는 일찍부터 은퇴 이후를 차분히 준비해 온 경우다. 정보기술(IT) 솔루션 업종에서 일해 온 그는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찾아 유심히 사회변화를 살폈다.

"고령화에 접어든 일본 등에선 고령자들을 위한 시니어 용품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죠. 이점에 착안해 헬스케어 용품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2005년 말 28년간 종사해 온 IT 업종을 떠난 뒤로도 조씨는 한동안 준비작업에만 매진했다. 헬스케어 용품 유통업체 본 메디컬이 문을 연 것은 그로부터 1년도 더 지난 2007년이 되어서였다. 본 메디컬은 당초 오프라인 매장으로만 출범했다가 2008년 뒤늦게 온라인 매장도 추가했다. 현재는 온라인이 매출의 90퍼센트에 이를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누구보다 오래 공부하고 신중히 준비한 창업이었지만 조씨도 시행착오를 겪었다. 어찌 보면 아직 시작단계인 우리나라 시니어 관련 산업 환경이 가져다준 '피치 못할 부침(浮沈)'이었다. 창업 5년차가 된 본 메디컬은 이제야 제법 자리를 잡았다. 올해 연매출은 20억원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인테리어 소품 전문점 김숙희 대표

우연히 배운 '리스' 시장에 납품하다 매장 차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전문점 '데일리스위트' 대표 김숙희(5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씨는 모두가

한준호 기자



철저한 준비 끝에 고령자 헬스케어용품점을 연 조용준 대표.

김승완 기자


리스 제작 솜씨를 활용해 인테리어 소품 전문점을 개업한 김숙희 대표.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은퇴를 고민하는 40대 후반에 사업가의 길로 뛰어들었다. 결혼 후 유치원 파트타임 미술강사로 일한 것을 빼곤 전업주부로 살았던 김씨를 바꿔놓은 것은 '리스(화환 모양의 장식품)' 하나였다.

"남편 따라 외국 나가 살 때 조화로 리스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귀국해 제가 만든 리스를 동생한테 선물했더니 그 동네에 남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한테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 주문을 받아 리스를 20개 만들었는데 그게 하루 만에 다 팔렸대요."

그렇게 조화로 만든 인테리어용품을 납품하는 것부터 시작한 김씨는 2006년 마침내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상가에 자신의 매장을 냈다. 그런데 한동안 잘나가던 가게에 2007년 이상한 조짐이 감지됐다. 월초만 되면 물건 떼러 오던 아가씨들이 씻은 듯 사라졌다. 알고 보니 온라인에 인테리어 소품점이 하나 둘 늘면서 고객들이 그쪽으로 몰려간 것.

김씨는 50을 목전에 둔 나이에 거래처 총각을 붙들고 6개월간 컴퓨터를 배웠고 웹디자이너를 고용해 마침내 온라인 매장을 열었다. 그 후 자리를 옮기고 취급물품을 늘려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지금의 데일리스위트가 됐다.

"자리를 잡기까지 수업료를 많이 냈죠. 그래도 트렌드를 따라잡으려 용감하게 도전해 온 게 다 자산으로 쌓였어요."

그는 "젊은 감각을 따라잡는 데에는 자식들을 활용하라"고 다른 베이비붐 세대 창업 희망자들에게 충고했다.

"우리는 가게 블로그 관리를 딸아이가 해줘요. 키워놓은 자식들이 최고의 인적 자산이 된 셈이죠."



김승완 기자

노인 요양보호사 파견업체를 창업한 박형남 대표.

노인요양사 파견업 박형남 대표

오락시설 매니저 경험 살려 실버산업 대리점 창업

노인 요양보호사 파견업체인 '비지팅 엔젤스' 노원지점 대표 박형남(47·서울 노원구 하계동)씨는 직장생활에서 쌓은 경험을 창업에 잘 활용한 사례다. 11년간 롯데월드에서 오락시설 매니저로 일한 그는 상당한 고객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학습지 관련 출판업계로 전직한 그는 학원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곤 앞으로 대세는 실버산업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가 2009년 창업한 것이 '비지팅 엔젤스'다. 비지팅 엔젤스는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노인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이다 보니 그의 직장 경험엔 적격이었다. 그는 서비스 업종에서 쌓은 강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사무실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만 있으면 추가 비용 들 게 거의 없어요. 재고 부담도 없고요. 고령자들이 대상이니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만큼 고객 입장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업주도 없는 셈이지요. 소상공인에겐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도 많으니 금상첨화입니다." G

글·손정숙 객원기자

중소기업청 창업 지원정책

'시니어 창업스쿨'서 고령자들 대상 다양한 교육

중소기업청에서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시니어 창업스쿨'에서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수료자에게는 5천만원까지 우선적으로 창업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시니어 플라자'는 창업 준비 고령자들을 위해 컨설팅 및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곳. 현재 서울 3곳 등 전국 6곳에 설치돼 있다.

'시니어넷(www.seniorok.kr)'은 고령자들에게 창업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동년배들과 활발하게 정보 교류를 하며 창업을 비롯한 여러 인생 문제 설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문의 · 시니어 창업스쿨 ☎02-2051-5566~7
소상공인진흥원 ☎042-363-7700 / 중소기업청 ☎1357

중소기업에 전문인력을 '맞춤 중매'

경제6단체, 올해 2천명 목표… 정년 늘리고 임금피크제 기업도 늘어

45세가 정년이라는 뜻의 '사오정'이란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시절이다. 요즘 사회에서 대개의 경우 조기은퇴는 재앙과 다름없다. 재취업이 어렵고 창업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고민은 더욱 커진다. 사회적으로는 그들의 원숙한 능력과 노하우를 잃게 된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정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중견인력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 조기은퇴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의 일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S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전해졌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명예퇴직이 발표됐고 그 명단에 S씨도 포함된 것이다. 입사 후 17년간이나 정열을 쏟았고 나름대로 담당 업무인 해외영업에서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명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S씨는 그래도 자신이 있었다. 나이도 사십대 초반이라 젊었고 자신의 능력이라면 어렵지 않게 전직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직은 번번이 실패했고 자금부족으로 창업도 여의치 않았으며 가족관계도 험악해졌다.

사면초가의 처지였던 S씨의 눈에 희망이 싹튼 것은 지난해였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안내문을 발견했다. 그는 당장 구직을 신청했고 무역협회는 신속하게 구인기업을 물색해 주었다. 연 매출 2천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었다. 면접을 보았고 합격했다. 지방근무였지만 고마웠다. 얼마 후에는 서울 근무 발령이 났다. 더 고마웠다.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은주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중견전문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희 무역협회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실장이 재취업 희망자와 상담하고 있다.

공신력 높은 기관 통하니 "재취업 쉬워졌네"

무역협회는 지난해부터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지만 현재는 실직 상태인 40~50대 중견전문인력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만 2백여 명을 취업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영희 무역협회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실장은 "45~55세의 중견인력들은 풍부한 경험을 쌓은 고급인력임에도 재취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무역협회는 중소기업과 중견 구직자들을 연결시켜 기업의 인재난을 완화하고 구직자들이 '인생2모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협회 회원사와 회원을 활용해 취업률을 높이고 있다. 양자에게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준다. 김 실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견인력은 관리직이어서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조심스럽게 채용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며 "무역협회의 공신력이 중견인력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역협회는 중소기업 출신의 퇴직자, 창업에 실패한 퇴직자, 임금체불로 부득불 회사를 떠난 사람 등 재취업이 어려운 인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능력이나 학력, 연령 모두 업무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취업 기회를 쉽사리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무역협회는 이메일, 취업박람회,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해 구직 신청을 받고 이들의 채용을 원하는 기업에 연결시켜 준다. 필요에 따라 면접 요령을 숙지시키는 방법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외 진출의 기회도 열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할 한국인 컨설턴트 풀(pool)을 공동으로 작성했고 5명이 채용됐다.


조선DB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작업 전에 안전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 실장은 "재취업을 원하는 중견인력들은 생활비 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높이가 그리 높지 않다"며 "기업으로선 적은 비용에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전문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무역협회 외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노동부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된 6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백47명 채용에 성공했고 올해는 2천명 이상이 목표다.

포스코 · 현대중 · 유한양행 등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들의 은퇴시기를 늦출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07년 4.4퍼센트였던 도입률이 지난해 11.2퍼센트로 3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근로자 입장에선 같은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숙련 근로자를 고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포스코는 종전 56세이던 정년연령을 58세로 늘리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2년 재고용하는 '2+2 제도'를 도입했다. 대신 52세 이후엔 임금 자동 승급을 멈추고 56세 이후엔 연차적으로 임금을 10~40퍼센트 삭감한다.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 은퇴연령은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1952년 이전 출생의 경우)가 돼 은퇴 후 삶이 보다 편안해질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생산직 기술자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역시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기업 입장에선 숙련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데다 고용안정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몰입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제약업계 최초로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2년 연장했다. 56세 이후 임금이 20퍼센트 줄지만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재훈 유한양행 인사총무팀 부장은 "임금이 줄더라도 근로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자녀학자금 지원 등 회사의 직원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환영하고 있다"며 "정년연장으로 노사화합 분위기가 고조돼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노사가 모두 이익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에 대한 지원액수와 기간을 늘린 것이 골자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에 찬성하는 근로자는 58.6퍼센트에 이르러 노사 단체협상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

글 · 변형주 기자

은퇴 후 천덕꾸러기서 멘토로 변신

전문직 퇴직자들, 중소기업에 현장 노하우·연구지식 전하며 기술자문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인력 활용이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주된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 전문직 퇴직자들의 업무 능력과 노하우를 살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 화제다. 중소기업진흥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RIC(Regional Innovation Center · 지역혁신센터)는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전문직 퇴직자들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연구개발(R&D)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의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널따란 캠퍼스 안에 자리 잡은 제1종합연구동의 성균관대 지역혁신센터(RIC)는 삼성 SDI 전무로 일하다 2010년 말에 퇴직한 장동직(53) 초빙연구교수가 '제2의 인생'에 발을 내디딘 곳이다. 공학박사인 그는 수원 인근의 중소기업과 성균관대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연구 지식을 전해주며 '컨설턴트와 연구직'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그가 상대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그는 '장 박사'로 불린다. 상근자는 아니지만 성균관대 RIC센터에 연구실이 있다. '장 박사'는 이곳을 중심으로 인근 중소기업의 요청을 받아 컨설팅 업무를 해주며 다른 성균관대 교수들 또는 대학생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그가 오랫동안 몸담아 온 모바일 관련 분야의 실전 경험을 나누고 있다.

컨설턴트와 연구직으로 대학서 새로운 인생

"우리와 같은 전문직 퇴직자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쌓아온 지식과 인맥, 각종 노하우를 모두 활용해 퇴직 후에도 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면 중소기업을 넘어서 우리나라 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 교수는 "대기업에서 장기 근무한 경우 다른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으로의 재취업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존심이나 연봉 삭감 등의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 "기업 문화가 다르고 필


이경민 기자

성균관대 RIC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RIC협회 서수정 협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대기업 은퇴 후 성균관대 RIC센터에서 중소기업 컨설팅 등으로 은퇴 후 새 삶을 살고 있는 장동직, 부용순, 박태석 초빙교수(오른쪽부터)와 함께 했다.

요로 하는 업무 자격이 달라 이들 장기 근무자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력과는 전혀 무관한 업종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그들이 쌓아온 업무적인 노하우와 경험이 그대로 단절된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교수가 '전직'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에 둥지를 틀고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게 된 것은 그와 같은 전문직 은퇴자들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진흥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RIC(Regional Innovation Center·지역혁신센터) 덕분이다.

다른 분야로의 전직 없이 경험 살려 보람

지식경제부의 지원사업인 RIC는 '산업계와 대학을 기술 혁신 주체로 육성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역량으로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나 연구시설을 구축해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편, 기업 맞춤형 연구 개발 등 R&D 지원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RIC의 다양한 사업 중 현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장 교수와 같은 전문직 퇴직자들에 의한 기술 자문이다.

성균관대 RIC를 비롯한 전국 1백15개 대학 RIC에서는 장 교수처럼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퇴직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나 R&D 지원, 국책 연구과제 수행 등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성균관대에만 중소기업 R&D 지원 전문직 은퇴자가 4명이다.

이들의 역할은 특히 중소기업에 절실하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연구부터 제품의 상품화에 필요한 표준화 작업 지원, 마케팅·판로개척에 대한 자문,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 컨설팅과 현장 지도, 워크숍이나 세미나 강사를 통한 후진 양성 등의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멘토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성균관대 RIC에서 활동 중인 박태석(65) 초빙연구교수 역시 공학박사로 중소기업컨설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삼성전기 첨단기판 연구센터장과 삼성전기 기술총괄담당 전무를 역임했다.

한국RIC협회장인 서수정(53)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에도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올리기 위해선 단순한 재취업 알선을 뛰어넘어 그들이 가진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들이 사회적인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 협회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R&D가 필요한 경우에만 자문

조선DB



성균관대 RIC에서 공동연구에 참여 중인 전문직 은퇴 초빙교수들.

을 요청할 수 있어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대학의 연구시설을 공유하고 연구팀원으로 대학생, 대학원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폭넓은 실무경험을 쌓고 퇴직자들의 경력과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식 전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문직 퇴직자들은 매우 가치있는 존재"라고 말한다.

전문직 퇴직자 활용한 중소기업 R&D 지원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0.5세(2009년 기준)로 2000년의 75.9세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늘어난 평균수명과는 달리 평균 퇴직연령은 기업 평균 정년 57세, 실제 평균 퇴직연령 53세로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선두인 1955년생들이 정년퇴직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한 첫해로 퇴직자들의 은퇴 후 생활과 경제활동에 관한 제도적인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자들에게 RIC처럼 단순한 재취업을 넘어 본인의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는 업무를 알선해 주는 기관은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장 박사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일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면 전문성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여러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처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과 시야를 갖춰야 한다"고 다른 베이비붐 세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충고했다. G 글·이윤진 객원기자

문의·한국RIC협회 ☎1577-7856 www.ric.re.kr

“천자문 아닌 ‘축적된 삶’의 지혜 가르치죠”

‘아름다운서당’ 서울 · 제주 2곳 운영… 대학생들에 인문 · 경영학 · 현장 노하우 전수

최근 은퇴 후 재능나눔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울과 제주 2곳에서 운영 중인 ‘아름다운서당’은 전문직 은퇴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니어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지식을 대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비영리교육기관이다. 여기에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도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며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세대 간의 훈훈한 교육현장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현장을 찾아가봤다.


염동우 기자

서재경 대표는 “시니어들의 인생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재경 대표(왼쪽)와 수료생 김다영씨.

“인생 전반전은 먹이 사냥꾼으로 살았으니 인생 후반전은 사회에 공헌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영리교육기관 ‘아름다운서당’을 설립한 서재경(64) 대표의 말이다. 대우그룹 부사장 출신인 서 대표는 퇴사 후 재능나눔이라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인 그는 은퇴 당시만 해도 노인문제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고 한다.

“대우그룹에서 22년간 근무하며 무역, 건설, 전자, 호텔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일했습니다. 해외도 많이 다니고 신입사원 면접관 생활도 오래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젊은이의 상을 잘 알죠. 남 못지않게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인생 노하우를 제 머릿속에만 묵혀두기가 아깝더라고요.”

전 · 현직 기업 임원, 일간지 국장 등 전문강사 참여

서 대표는 자신의 인생 경험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름다운서당을 열게 됐다. 아름다운서당은 전문직 은퇴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니어들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교육기관이다. 현재 서울 ‘영리더스아카데미’와 제주 ‘HR아카데미’ 두 곳이 운영 중이다.

교육과정은 1년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취업을 앞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 경영학, 기업 실무 등을 무료로 가르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맞춤형 교육으로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거의 1백퍼센트다. 삼성, LG 등 대기업 취업률도 높다. 지금까지 67명이 수료했으며 재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자신의 꿈을 찾아 취업했다.

고려대 심리학과 4학년 김다영(23)씨는 지난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김씨는 “선생님들이 다들 살아 있는 교과서”라며 “실무수업도 재미있고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데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아름다운서당 선생님들은 제 인생의 멘토”라며 신뢰감

을 보였다.

강사진은 상당하다. 전·현직 기업체 및 은행 임원, 일간지 편집국장, 성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은 민간 연구소 '희망제작소'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희망제작소는 전문직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재능나눔을 권장하는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서 대표는 "행복설계아카데미에서 강사로도 활동 중"이라며 "수강자 중 괜찮은 사람들을 찜 했다가 우리 강사로 초빙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사비는 전혀 없다.

서 대표는 "일종의 '프로 보노(Pro Bono)' 개념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기부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행사가 있을 때면 강사들에게 기부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조선DB

아름다운서당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 때문에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거의 1백퍼센트다. 서재경 대표가 수강생들에게 토론수업을 지도하고 있다.

외환은행 임원을 지낸 이찬웅(60)씨도 행복설계아카데미를 통해 강사로 초빙됐다. 이씨는 은퇴 후 아름다운서당에서 자신의 근무경력을 살려 2년째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다. 한 달에 한 차례 4시간씩 한국경제사, 경영서 토론, 케이스스터디 등을 강의한다. 이씨는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전해주고 있다"며 "봉사라기보다는 선배와 후배 간의 대화라고 생각한다. 요즘 세대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강사 중에는 현직인들도 많다. 베이비붐 세대인 김종민(50)씨는 "아직 한창 일할 시기지만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지 미리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제작 총괄 프로듀서다. 이전에 영화제작사에서 총괄이사로 근무했던 그는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감독, PD, 촬영자를 양성하는 학교 책임자를 맡고 있다.

장소는 지자체 제공… 올해 2곳 더 늘어날 예정

김씨는 아름다운서당에서 3년 전부터 한국문학, 외국문학, 고전 등 독서토론을 지도하고 있다. 그는 "영화는 사실 은퇴 개념이 없지만 인생 후반전은 나누며 살고 싶다"며 "아름다운서당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며 경제적 이익 외에 다른 것들도 돌아보게 돼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아름다운서당은 올해 2곳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경기도장학관이 지원하는 경기아카데미와 수원시가 지원하는 수원아카데미가 운영 준비 중이다. 아름다운서당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받아 운영한다. 현재 영리더스아카데미는 서울 대방동의 '남도학숙'에서 장소를 무료로 빌려 쓰고 있다. 남도학숙은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출자해 설립한 기숙사로 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머무는 곳이다. HR아카데미는 제주대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서 대표는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 학생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해주고 싶었다고 한다. 아름다운서당도 지방부터 시작했다. 서 대표가 전남대학교에 제안해 2005년 전남대학교에서 아름다운서당이 처음 열렸다. 이를 계기로 아름다운서당 2기부터는 전남 지역 학생들이 기숙하는 서울 '남도학숙'에서 운영하게 됐다. 아름다운서당이 입소문 나면서 4년 전 제주대학교까지 확장했다.

서 대표는 '아름다운서당은 대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나 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한다.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임차료와 강사비가 전혀 안 드니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전국 어디나 은퇴자들이 있고 서울에서 생활하는 시니어 중에는 시골 출신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후배들을 양성할 수도 있죠. 아름다운서당은 시니어들이 일생 갈고 닦은 노하우를 젊은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제가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다 전수하고 적극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G

글 · 이제남 기자

문의 · 서재경 대표 jksuh@jksuh.co.kr
참고 · 아름다운서당 블로그 blog.daum.net/beautifulsodang

'퇴직자의 안식처' 주택연금·U헬스케어

매달 생활비 지급… 비만·혈압 지속 체크하고 입원 등 스피드 대행

인구구조 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킨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됐다. 머지않아 베이비붐 세대는 국내 노령층의 주축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을 겨냥한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노후자금과 건강과 관련한 산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대비한 관련업계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H씨는 지금도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것을 뿌듯하게 여기고 있다. 당시는 H씨가 퇴직을 한 지 15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다. 일정한 수입이 없던 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문제는 대출금이 늘면서 이자도 불어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대로라면 전 재산인 집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였다.

H씨는 과감하게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가족을 설득해야 했다. 아내는 집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했다. 하지만 생활고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해 동의를 얻어냈다. 자녀들도 흔쾌히 지지했다. 그 후 H씨의 노후는 편안해졌다.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생활비 걱정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연금 중 일부를 저축해 손자들에게 선물하는 재미도 생겼다. 그는 주택연금을 '고령인의 안식처'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60세 이상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첫선을 보인 2007년 5백15건이던 가입자가 2009년 1천1백24건, 지난해 2천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4월 말 현재 8백50명이 신규가입을 했고 이 속도라면 연말 3천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은 특히 서민층 은퇴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가입자가 전체의 65퍼센트, 85㎡ 이하의 국민주택이 78.1퍼센트, 월지급액 1백50만원 이하가 전체의 80퍼센트에 이른다. 가입자들의 만족도는 2008년 45.5퍼센트에서 2010년 63퍼센트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9억 이하 주택 담보로 편안한 노후 예약

김형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은 "퇴직 후 자녀를 출가시키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남는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이마저 상속을 염두에 두고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최근엔 상속 대신 생전에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신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살던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금을 매월 나눠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가입자가 그대로 유지하며 가입을 해지하면 금융기관은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당연히 가입자의 몫이 된다. 최대 장점은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죽을 때가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DB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공사는 박람회 등을 통해 주택연금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 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60세	23	47	70	94	118	141	165	189	212
65세	28	57	86	115	144	172	201	230	259
70세	35	70	106	141	177	212	248	283	319
75세	44	88	133	177	221	266	310	354	354
80세	56	112	168	225	281	281	385	385	385

단위 만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오래 살아 담보인 집보다 받은 연금이 많아지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가령 60세에 3억원 상당의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월 70만원을 종신토록 받게 된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도 없다.

자신의 경제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연금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먼저 연금수령 방식이 다양하다. 불시에 필요한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연금수령 방식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 3억원의 집을 담보로 매월 7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3억원 가운데 5천만원은 수시로 입출금하고 2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연금액을 다르게 설계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액을 받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고, 초기에 많이 받다가 수령액을 줄어들게 할 수도 있으며, 초기에 적게 받다가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받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설계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모든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없다. 가입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시중은행에서 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홈페이지(www.hf.go.kr)와 전화(1688-8114)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노후건강 보장 건강관리 서비스 급부상

건강관리 서비스도 각광받기 시작했다. 병원이 이미 질환이 발생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라면 이 서비스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을 관리해 준다. 비만 위험 고객에겐 체중관리를, 혈압이 높은 고객에겐 혈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줘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일반화됐지만 국내에선 최근 들어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건강관리 서비스 업계의 선두주자인 에임메드의 이영준 대표는 "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보험사와 일반기업들이 2~3년 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질환이 발생하기 전부터 관리하면 비용부담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남 기자

이영준 에임메드 사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갈수록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진결과는 본인은 물론 에임메드에도 통보됐다. 이 고객이 검진결과를 자세히 보지 않고 방치한 반면 에임메드는 꼼꼼히 살폈다. 그 안엔 주의할 만한 소견이 있었다. 위에 암으로 의심되는 징후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에임메드는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 정밀진단을 받도록 했다. 결과는 위암이었다. 다행히 초기였고 수술을 마친 후 이 고객은 직장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다.

에임메드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병에 걸린 고객이 어느 병원의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모를 때 적절한 의료기관을 추천하는 것은 물론 제휴 의료기관의 경우엔 대기시간도 앞당겨 준다.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술 일정을 1주일 안에 잡아 주기도 한다. 암환자의 경우 전문 간호사를 파견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최근 들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원격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U헬스케어가 그것이다. 집에서 건강 체크를 하면 이를 업체가 수신해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미국과 일본에선 이미 관련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고 한국의 기업들도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몇 년 후면 한국의 기업들이 건강관리 관련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법제도가 정비되면 국내 시장도 빠르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G

글·변형주 기자

퇴직연령 올려 가장 확실한 '연금개혁'

미국은 정년제도 자체가 불법… 일본도 '65세 정년 연장' 2013년 시행

우리보다 앞서 베이비붐 세대가 등장한 나라들이 직면한 문제와 이에 대응한 정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를 내다보고 적절한 정책결정을 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이들 국가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10월 '2010 세계 노령화: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보고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세계에 대해 달갑지 않은 전망을 내놓았다.

전 세계에서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은퇴하게 될 향후 20년 동안 정부가 지게 될 재정적 부담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노령에 대비해 연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퇴직연금 펀드의 크기가 더 줄어들어 향후 연금뿐 아니라 의료비와 장기요양비 지출 규모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노령지출 재정부담 급상승… 2050년엔 GDP 30퍼센트

S&P는 지금의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50년경 벨기에·프랑스·그리스·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우크라이나 등 6개국의 노령에 관련된 지출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0퍼센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진국들의 노령 관련 지출규모도 GDP의 27퍼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해 10월 17일자에서 "이러한 문제를 세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경제성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를 맞은 국가들은 퇴직연령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개혁'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55세에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1986년 정년제도가 폐지된 미국에서는 정년제도 자체가 불법이다.

일본은 직장인의 법률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5월 10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고용안정법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한 고령자고용 대책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르면 2013년부터 새로운 정년제도를 도입하도록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정년연장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1월 스페인 사회주의 정부는 스페인 노동조합연맹과 은퇴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스페인의 은퇴정년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예의 하나였으나 최근 스페인이 금융위기에 처하자 그동안 은퇴정년 연장에 반대해 오던 노조가 결국 합의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법 개정을 성사시켰



일러스트·주만성

다. 사르코지의 연금법 개정안은 60세인 퇴직연령을 2011년부터 1년에 4개월씩 늘려 2018년까지 62세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금가입기간(40.5년)' 부족에 따른 감액 없이 연금수급이 가능한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높였다. 사르코지 정부는 퇴직연금 수령액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 대신 정년연장을 나날이 적자가 심각해지는 연금문제의 해법으로 선택한 것이다.

영국 연립내각도 정년과 연금수령 시기를 2016년까지 66세로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은 여성 60세, 남성 65세다. 영국의 경우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4~2026년 68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독일도 이미 지난 2006년 정년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베이비붐 세대 스스로 자신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여건 조성도 중요한 정책이다.

미국은 '은퇴는 개인의 문제'란 입장. 따라서 노동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대신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럽도 연금법 개정·노령인구 취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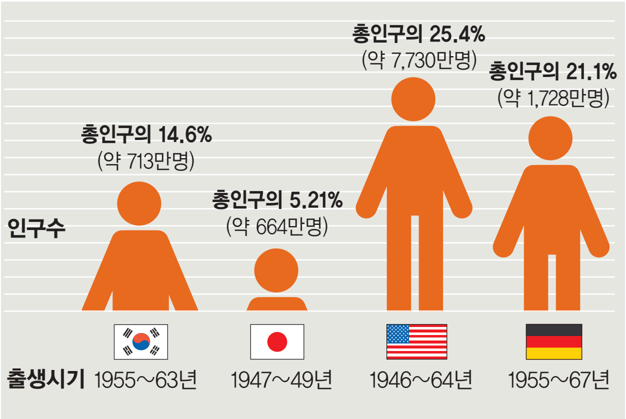
일본은 정부의 고령자 노동시장 개입이 활발해 특히 55~64세 중년 및 고령자의 재취업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이 65~69세 인구 중 49.5퍼센트가 취업상태에 있는데도(2007년 일본 고령화사회백서) 고령층 고용대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고령화가 매우 심각해 젊은층의 부양부담이 커지는 탓이다. 또 일본에서 1945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일제히 퇴직연령에 돌입하면서 일부에서 전문기술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1994년부터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일본은 65세까지의 고용을 기업들의 '노력의무'로 규정하는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2000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어 2006년 4월 관련법을 개정해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정년연장, 계속고용,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 덕분에 일본 전체 기업 가운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은 2010년 말 현재 46.2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00년 '리스본 전략'에서 고령화 대책의 청사진을 밝혔다. 2010년까지 55~64세 인구의 취업률을 50퍼센트로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별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에 따라 독일은 노사 양측이 1999년 '일자리·훈련·경쟁을 위한 동맹'을 맺기로 합의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조기퇴직 감축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2001년 만들었다. 또 50세 이상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매달 5백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국도 2006년부터 근로자의 나이에 따른 취업제한을 철폐했으며 50세 이상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임금보조금 제도를 연계한 '뉴딜 50플러스'란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도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제한법'을 두고 있다.

학습·사회공헌 욕구 살릴 기회 넓혀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연구실의 손유미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창출과 지원'이란 보고서(2010년)에서 "우리보다 앞서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를 고민한 나라들을 보면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에 대한 정책과 집행과정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되고 있고, 파트너십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으며 일자리 아이템이 참으로 다양하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베이비부머들을 조직화해 사회적 공헌활동은 물론 노동시장에서의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위원은 "특히 이들 국가에서 베이비부머들의 '니즈(필요)'에 기반한 사업 아이템 도출에 관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베이비부머들의 학습욕구를 찾아내 지역대학들과 연계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욕구를 찾아내 지역의 단체들과 연계하고 있는 점, 다양한 직업들을 발굴하고 베이비부머들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아이디어 등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참고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G

글·박경아 기자

80세까지 현역으로 일할 각오하라

자녀교육에 대한 명확한 계획 세워 교육비 부담도 줄여야

은퇴는 빨라지고 수명은 길어졌다. 70세까지 살 걸로 생각하고 은퇴 이후를 준비했는데, 아뿔사! 그보다 더 오래, 아니 100세까지 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이후를 위해 자산관리와 더불어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기대수명은 늘고, 은퇴 대열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긴 노후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궤도를 정비, 자산관리와 더불어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면 장수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최소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강창희(64) 소장은 "100세 인생의 새로운 설계는 오래 사는 위험, 즉 장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자산관리 5계명'을 제시했다. 5계명 중 강 소장은 평생 현역으로 일하는 것에 역점을 뒀다.

1 현역기간을 최대한 늘려라

여러 일자리를 옮겨 다니더라도 현역으로 일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높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누가 더 오래 다니느냐가 관건이다. 한 직장을 그만두는 것과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

직장은 여기저기 옮겨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노인 일자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체면을 버려야 한다. 자기만의 주특기도 있어야 한다. '평생 현역'으로 살려면 인생 2막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강 소장은 "30대까지는 자산 축적도 중요하지만 좀 더 길게 보고 자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점에서 100세까지 산다면 어떻게 해야 80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노후에 허드렛일을 해서라도 한 달에 50만원을 버는 것은 정기예금 2억원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제2, 제3의 직업을 계속 갖기 위해선 그만큼 자기 계발을 위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소장은 최근 2~3년 사이에 40, 50대를 중심으로 인생 후반기를 위해 시간을 두고 자신에게 재투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이나 교원 등을 제외하면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 힘들다. 결국 고령세대들이 재취업에 절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재취업을 위해서는 먼저 방향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정년퇴직 후에도 수입을 위해 일할 것인가, 수입이 없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또는 주위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일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경제적인 이유로 재취업을 한다면 더욱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2 부동산 줄이고 금융자산 늘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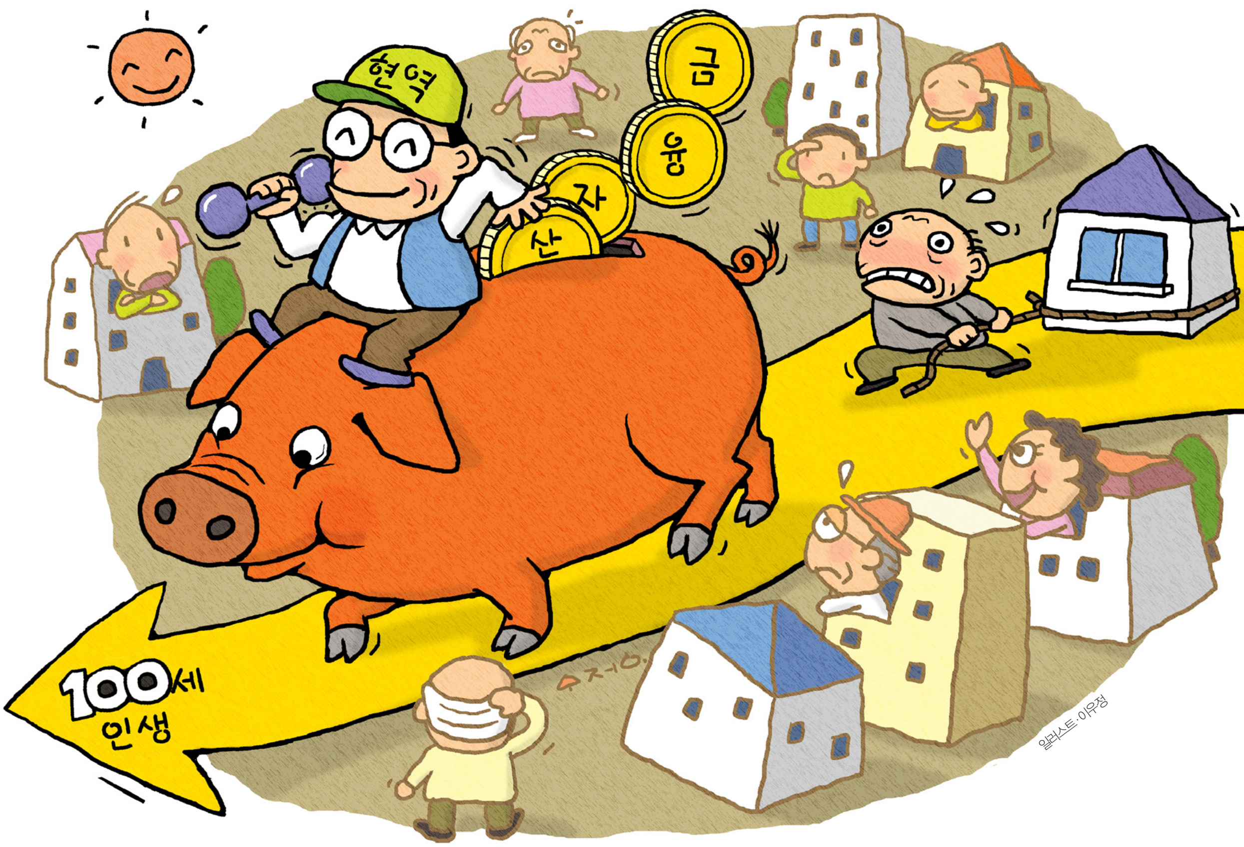
우리는 은퇴하면 대부분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다. 노후 생활이 더 팍팍해지는 이유다. 부동산 비중은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7퍼센트인 반면 미국은 33퍼센트, 일본은 39퍼센트 수준이다. 일본도 예전에는 부동산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미국식으로, 아니 미국보다 더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은 인구구조 등 외적인 변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이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출산율 저하와 노년인구 증가로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생길 여지가 있다.

3 '소득의 삼층밥'을 지어라

국민연금은 필수이고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함께 가입, 노후 소득원을 삼중 장치로 해 놓으라는 것이다. 노후에 매달 만만찮게 들어가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금만큼 든든한 게 없다. 일본과 미국의 노후 생활재원은 70퍼센트가 연금이다.

젊은 시절부터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은 물론 세상 떠날 때까지



일러스트·이우정

최저 생활비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30, 40대가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 교육에 대한 원칙 정립이다.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사람들이 꼽는 이유 중 60퍼센트 이상이 자녀교육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 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노년의 경제적 독립은 자녀의 부담을 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건강관리가 진짜 재테크이다

노후에 가장 큰 변수는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는 것이다. 늘 운동하고 몸 생각을 해야 한다.

미국, 일본에서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 생활비가 줄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줄지 않았다는 대답이 30~40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병원비와 간병비에 있었다. 여기에 요양원이나 노인홈에서 보내야 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도 생활비가 줄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였다.

우리나라도 같은 조사를 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젊은 시절부터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은 물론 관련 보험에도 가입해 두어야 한다.

5 은퇴 준비는 20대부터

20대에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산을 늘리고 건강을 관리하는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40, 50대라도 늦은 것은 아니다. 100세 인생에 50대는 반환점이다.

주의할 점은 이제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이라면 장래의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으로서 '자기 자신'을 연마하는 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 소장은 "현재는 사회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는 시기로 이런 비상시에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기존에 해 왔던 형태로 남은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평생 현역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소장의 충고다. G

글·강선임 객원기자

자식 뒷바라지 지나치면 노후에 '쪽박'

부부 중심으로 패러다임 바꿔 30~40년 노후생활 대비를

베이비붐 세대는 아마 90세까지는 무난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래 사는 것은 분명히 축복받았다고 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은퇴생활 기간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장수는 '축복'이자 '리스크(risk · 위험)'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다.

베이비붐 세대가 오래 사는 데 따른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 리스크는 경제 불안이다. 은퇴 후에는 안정된 소득원이 없어지므로 생활수준이 예전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경제 불안감은 본인이 준비를 철저히 하여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 기초연금,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여유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보유재산은 2억5천만원 정도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재산의 80퍼센트가 살고 있는 주택이어서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찰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35퍼센트가 빈곤층에 속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삶도 이런 코스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자녀 결혼 등에 노후자금 털면 빈곤층 전락 불 보듯

60세에 은퇴하여 30~40년 가량 노후생활을 한다고 가정하면 4억~5억원(부부 2인·월 생활비 1백50만원 기준)의 자금이 필요하다. 비싼 도시물가를 감안할 때 월 1백50만원으로는 빠듯한 생활이 불가피하겠지만 돈을 이 정도 저축해 놓은 베이비붐 세대도 많지 않


조선DB

지난해 6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제3기 인생대학' 수료식 . 대부분이 베이비붐 세대인 수료생들은 "든든한 은퇴 후 50년을 위해선 1백번 고민하기보다 즉각 준비에 들어가는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을 것이다.

준비가 아직 부족한 사람들은 월급의 30~50퍼센트를 계속 떼어 연금상품에 가입해 두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여 재산을 꾸준히 불려 나가야 한다. 일정한 고정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도 괜찮은 방법이다. 저축액이 별로 없다면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 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쓰고 죽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켰으면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아이가 고생할 것 같다'는 생각에 노후자금을 자녀 결혼자금과 주택구입 지원 등에 털어넣고 나면 빈곤층으로 떨어질 확률이 1백퍼센트에 달한다. 나와 자녀의 생활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 고생할 것이다.

두번째 리스크는 건강 불안이다. 나이가 60대 중반을 넘어서면 몸 곳곳이 고장 나게 된다. 또 직장에서 퇴직하여 집에 하루 종일 머물다 보면 생활습관이 불규칙하게 되어 신체적·정신적인 불안감이 커진다. 요즘 갑자기 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망원인의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질환, 3위가 심장질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늙어서 중병(重病)에 걸리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며, 암과 같은 질환은 치료비가 비싸 노후자금까지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돈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40, 50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 당장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헬스테크를 시작해야 한다.

세번째는 삶의 보람을 잃은 데 따른 불안감이다. 직장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생활수단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재이유를 확인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은퇴를 두려워하고, 은퇴 후에 극도의 무력감에 빠진다. 그러나 은퇴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가 사고(思考)의 관점을 완전히 바꾼다면 새로운 삶의 보람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노년의 행복은 가족, 이웃, 부부 관계서 나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노년의 행복은 청춘을 보냈던 회사에 더 충성하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자녀들과 배우자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다. 노후자금도 변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로부터 외면까지 받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진다. 특히 부부 관계를 돈독히 하여 '황혼이혼' 같은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나눔의 실천이다. 나의 고향과 나의 이웃, 그리고 우리 동네와 지역사회를 위해 내가 가진 재능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돈이 없으면 시간을 함께 나누면 된다. 사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시간이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 가르치는 시간을, 기계 잘 만지는 사람은 기계 고치는 시간을 내어 남을 돕는 것이다. 봉사의 보람은 직장생활에서 얻는 존재감 이상으로 큰 기쁨을 안겨 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노인의 60~70퍼센트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10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들을 위해 앞으로 선배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노년의 행복은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제2의 인생' 준비에 대해 깊은 성찰(省察)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 기업들도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7백12만5천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좌절감에 휩싸이거나 사회복지 대상 계층으로 전락하면 엄청난 국가적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 기업도 '제2의 인생' 준비 도와야

기업들은 정년을 이유로, 또 기업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베이비붐 세대를 무작정 구조조정하기보다 '일할 기회'를 다시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직장을 잃는 것이 곧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우리나라 경제환경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은퇴준비가 덜 된 베이비붐 세대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생계비를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고령자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할 일도 많다. 우선 정부는 고령자 직업교육기관이나 창업지원센터를 많이 설립해 베이비붐 세대들이 전직이나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대학들은 부설기관으로 '제3기 인생대학', '평생교육원' 등을 만들어 공부에 관심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평생교육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은퇴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다.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정부와 사회, 기업, 개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장수(長壽)의 축복이 우리들의 준비 부족으로 국가적·사회적 재앙으로 귀결될 경우 한국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질 것이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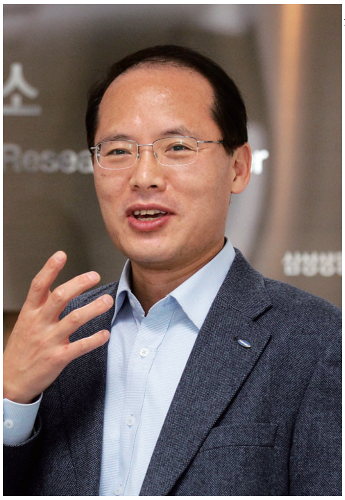


글 · 송양민 (가천의과학대 보건복지대학원장)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부동산 비율 줄이고 채권은 늘리세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51) 소장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행복 포트폴리오를 잘 꾸며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 포트폴리오란 가족, 재산, 건강, 사회활동, 취미·여가 등 노후에 신경을 잘 써야 하는 5가지를 말한다. 이어 그는 "선진국에서 노후는 직장을 떠나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자아실현을 하는 시기"라며 "지미 카터의 경우 은퇴 후 더 존경받고 노벨상까지 탔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지난 2월 설립됐고, 30여 명의 연구원이 선진국형 은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조선DB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베이비붐 세대 개인의 전체 재산 중 부동산 비율을 50퍼센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후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체 재산 중 부동산 비율을 50퍼센트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금융 자산의 경우 주식의 비중은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층 보장 구조'의 연금을 운영하는 것을 권합니다. '3층 보장 구조'의 연금이란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을 말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은 월 77만원입니다. 퇴직금 등 1억원을 연금화할 경우 월 4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줄여서 2억원을 연금화할 경우 월 90만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2백12만원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필요한 월 생활비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주거 플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주거 플랜은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내 집에서 그냥 거주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집을 줄여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전원생활을 하는 것이고, 네번째는 실버타운에서 사는 것입니다. 스웨덴 노인들은 90퍼센트가 그냥 자기 집에서 삽니다. 그만큼 노후 자금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내 집에서 살거나 집 평수를 줄여서 이사를 하는 쪽을 권하고 싶습니다. 전원생활을 하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버타운으로 가면 생활비가 상승하고 생활이 단조로워집니다."

은퇴 후 창업을 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도 많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경우의 생계형이 아니면 창업을 권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고령화 사회가 오면 구매력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은퇴 5~10년 전에는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작하셔야 맞지만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 건강적으로뿐만 아니라 소일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취미활동, 사회봉사 등을 미리 익혀야 합니다."

노후 자산관리는 평균 수명이 아니라 최대 수명을 기준으로 자산관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략 몇 살 정도까지인가요.

"남성은 85세, 여성은 최소 90세로 책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마다 6개월씩 기대 수명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설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금화, 행복 추구 등의 항목을 1백점 만점으로 했을 경우 아직까지는 50점 미만입니다. 선진국은 70~80점 정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후 관리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 맞는 고령화 사회 대책을 선진국으로부터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수용하겠다는 아이디어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대량 매각으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층 보장 구조'의 연금화를 교육,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의 반도 못 채웁니다. 기업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고만 말고 임직원들의 인생 설계를 진심으로 도와야 합니다." G

글·서일호 기자

한번 海兵隊는 영원한 海兵隊

R.O.K MARINES CORPS

2011 하계방학
대학생 해병체험 캠프





해병체험 3박4일이면 현빈처럼 될 수 있다!!





모집 기간(3박4일)

제2기 : 6월 28일 ~ 7월 1일

제3기 : 7월 12일 ~ 7월 15일

주요 일정

· 1일차 : 입소식/유격기초
· 2일차 : 산악행군(분단현장 체험)/공수기초
· 3일차 : 공수막타워/캠프파이어
· 4일차 : 수료증수여/퇴소식

특 전

· 연구소이사장, 해병대 제2사단장 수료증 지급 (군 장교후보생 지원 및 취업시 활용가능)
· 우수자 시상(이사장 2명, 사령관/사단장 각 1명)
· 3박 4일의 동영상 / 추억사진 무료제공

참가비 : 1인 4만 5천원

캠프장소 : 해병대 제2사단 유격대

신청 www.kica2008.or.kr (회원가입 후 해병캠프 접속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 한국위기관리연구소 070)7834-3783, 02)583-7605

“4대강살리기는 한발 앞선 친환경 사례”

홍수 범람 ‘악마의 선택’ 단행한 美 미시시피주 대학생들 여주 강천보 찾아

최근 미국에서는 폭우로 늘어난 강물이 미시시피 인구밀집 지역으로 범람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방류하는 ‘악마의 선택’을 해 화제가 됐다. 이 무렵 미시시피강 유역에 위치한 미시시피주립대 학생들이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을 찾았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참석차 한국에 온 이들은 한강의 강천보 현장을 방문해 한국의 물 관리 현황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미시시피 대학생들이 5월 12일 경기도 여주군의 강천보 홍보관 2층 전망대에 올라 강천보를 바라보고 있다(왼쪽 사진). 이렇게 서면 완성된 강천보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나요? 한 여학생이 강천보 홍보관에서 블루 스크린 영상 앞에 서 있다.

미국 중부 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미시시피강의 수위가 급격히 불어난 지난 5월 14일(미국 시각) 미시시피 하류 지역의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주도 배턴루즈와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의 수몰을 막기 위해 소도시와 농경지를 침수시키기로 결정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덜 나쁜’ 쪽을 택한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 언론은 ‘악마의 선택’이라 불렀다.

미시시피 강물은 지난 4월부터 상류 쪽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급격히 불어나 주변 도시들을 위협해 왔다. 미 기상당국은 이번 사태가 1백년 만에 맞는 최대 홍수라고 밝혔다.

수몰 위기를 모면한 뉴올리언스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도시의 80퍼센트가 물에 잠기고 1천5백여 명이 사망한 참사를 당한 적이 있다. 미시시피강 하류 델타지역에서는 1927년에도 대홍수가 발생해 이재민 60만명과 6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미시시피 강물이 한창 불어나던 지난 5월 12일(이하 한국 시각) 미시시피주립대 학생 17명이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의 4대강살리기 강천보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2주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로, 한국의 강 관리와 수변 개발 등을 알아보기 위해 4대강살리기 현장을 찾은 것이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중 방문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미시시피주립대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2007년부터 매년 5월 교류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 대학들에 재학생들을 파견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오전 강천보의 4대강살리기 홍보관에 도착한 미시시피대 학생들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등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홍보관을 둘러보았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미시시피대 학생들은 "하천의 주요 오염원은 무엇이었나" "어떤 해법을 제시했나" "일자리 창출 이외에 어떤 경제적 이점이 있는가" "지속적으로 홍수와 가뭄의 피해가 있었는데 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가" "4대강살리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녹색기술이 사용되었는가"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미시시피대 학생들이 강천보 상황실에서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으로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미시시피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에 있는 한스 팰라시오스 씨는 "2주간의 한국 방문에서 4대강살리기 현장과 인천 송도신도시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4대강살리기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제어,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야심찬 시도이며 '지속가능성'의 전형적 예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자연자원 보존·경제회복 위한 주요 모델"

'인도인 부모를 둔 멕시코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로벌한 출생 배경'의 팰라시오스 씨는 "4대강살리기의 종합적 디자인은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살리기의 중요도에 매료됐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비할 데가 없는 수준이고 사회·경제·자연자원에 미치는 효과는 세계적 경지다. 4대강살리기는 세계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연구해야 할 이상적 프로젝트이며 자연자원 보존과 경제회복을 위한 주요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제인 에나 해리스(여·MBA과정) 씨는 "무역·신기술·정보기술(IT)을 선도하는 한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국제무역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다"며 "4대강살리기 현장 방문은 이번 한국 방문 중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4대강살리기가 경제와 환경 등에 미치는 효과는 실로 놀랍다"고 감탄한 해리스 씨. 그는 "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이러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4대강살리기와 같은 프로젝트가 필수적이다. 이전에 정부와 미 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규모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국민들에게 환경·오락·경제적 혜택을 되돌려주려 노력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앤서니 조던 파발오로(우주공학 전공) 씨는 "4대강살리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훌륭한 사업"이라며 "전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라는 사업의 주목적은 존경스러우며, 홍수제어를 위해 사용된 엔지니어링 기술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국제무역을 전공하는 제이슨 류 씨는 "4대강살리기는 환경을 유지하고 재활성화시키는 매우 긴요한 사업이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킴벌리 렌스 왓슨(여·역사와 외국어 전공) 씨는 "한국은 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나라"라며 "4대강살리기는 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한발 앞선 친환경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기후변화의 도전 앞에 놓인 강' 공통분모에 감명

이날 강천보를 방문한 미시시피대 학생들의 공통적인 소감은 '범국가적으로 문화·환경·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여러 학문 분야가 모인)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의 4대강살리기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이었다.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물 관리 노력과 사례를 체험한 미시시피대 학생들은 5월 13일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완성 이후의 모습을 보기를 희망했다. 이들이 4대강살리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미시시피와 한국이 가진 공통분모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후변화의 도전 앞에 놓인 강'이란 과제 말이다. G

글·박경아 기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트위터 twtkr.olleh.com/save4rivers
미투데이 me2day.net/save4riv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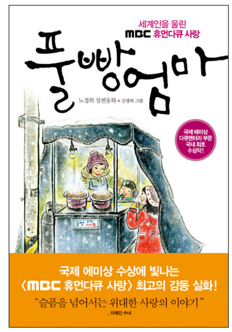
TV다큐 '풀빵엄마'를 동화로 펴낸 노경희 작가

"못다 한 '엄마의 사랑' 글에 담았습니다"

'풀빵엄마'. 2009년 MBC 〈휴먼다큐 사랑〉에서 아련한 슬픔을 안겼던 이름. 싱글맘이자 장애인, 말기 위암 환자였던 풀빵엄마 최정미씨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전해 주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3년 뒤 '풀빵엄마' 이야기가 당시 방송작가였던 노경희씨에 의해 동화로 만들어졌다.



노경희 작가는 "1년에 두세 번 아이들을 만나러 가긴 하지만 그 외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방송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화를 펴냈다"고 말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 밤, 엄마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골목에서 풀빵을 판다. 그 시간 일곱 살, 다섯 살 난 두 아이는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불을 펴고 잠잘 준비를 한 뒤 두 손 모아 기도를 한다.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 주세요. 엄마가 빨리 나아서 저희도 집에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3년 전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MBC 〈휴먼다큐 사랑–풀빵엄마〉(이하 '풀빵엄마')의 한 장면이다. 위암 환자인 싱글맘 최정미씨는 항암 치료로 피폐해진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풀빵 반죽을 준비한다. 사랑하는 가족,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린 딸과 아들을 위해서다.

자신이 아파 쓰러지는 순간에도 아이들 걱정이 더 컸던 최씨, 그리고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살뜰하게 챙기던 큰딸 은서와 천진난만한 아들 홍현이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결국 최씨는 방송이 나가고 두 달 뒤 세상을 떠났다.

6개월간 가족을 지켜본 경험에 상상력 덧붙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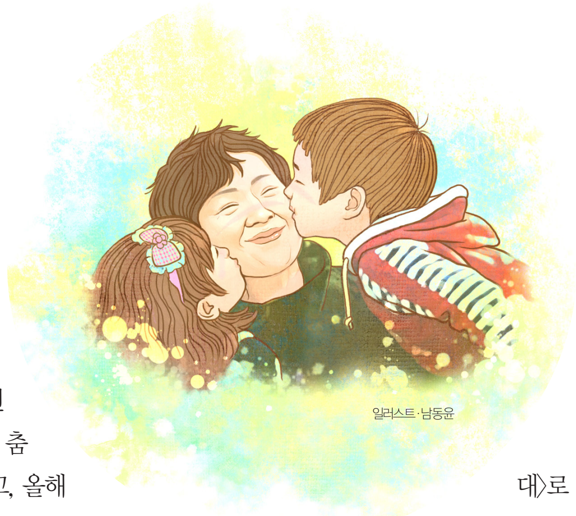
최근 '풀빵엄마' 이야기가 동화책으로 만들어졌다. 6개월 동안 최정미씨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눈물지었던 다큐멘터리 작가 노경희(43)씨가 작가적 상상력을 보태 동화로 엮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남긴 영상편지인데, 노 작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었을 법한 이야기를 글로 옮겼다고 말한다.

"일 년에 두세 번 작은 선물을 들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긴 하지만 그 외에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은서와 홍현이도 읽을 수도 있는 동화를 펴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50분 방송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화를 만들었어요."

현재 은서와 홍현이는 이모를 엄마, 이모부를 아빠라 부르며 잘 지내고 있다. 두 아이와 함께 살기로 하면서 이모는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은서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처럼 여전히 춤추는 걸 좋아해 댄스아카데미에 다니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홍현이는 주말마다 축구교실에 다닌다.



일러스트·남동윤

노 작가는 "아이들의 최근 모습"이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노경희 작가는 최정미씨를 지켜보면서 싱글맘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사는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으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버팀목도 없이 두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이고, 이는 곧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뜨거운 모성애로 분출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최씨는 자신의 아픔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동생 챙기는 은서의 의젓한 행동에 많이 울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당장 쓰러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풀빵을 구웠고,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있는 날에는 엄마의 사랑이 아이들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지도록 따뜻한 밥을 지었다.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걸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최씨는 아이들이 집에 올 때만이라도 엄마 노릇을 하려 무척이나 애썼다고 한다.

"정미씨와 아이들은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모자원에서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왔는데, 어쩔 때는 배를 쥐어짜는 듯 심한 통증이 밀려와 제대로 아이들을 챙기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러면 은서가 알아서 동생을 다 챙겼어요. 뽀득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동생 세수를 시켜 주고, 옷도 갈아입히고요. 그 모습이 참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렸어요."

은서의 의젓한 행동은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생에게 자기 몫의 간식을 군말 없이 내주고, 엄마 대신 누나의 귓불을 만져야만 잠이 드는 동생을 위해 밤마다 늘 옆자리를 내줬다. 해가 지자 능숙하게 잠자리를 펴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고 노 작가는 마음으로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는 처음 풀빵엄마 사연을 접했을 때 '은서'라는 이름에 강하게 마음이 움직였다고 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자신의 큰딸 이름과 같기 때문이다. 덕분에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쓸 때도, 동화를 쓸 때도 노 작가는 진짜 은서와 홍현이의 엄마가 됐다는 생각으로 감정을 몰입할 수 있었다.

노경희 작가는 93년 MBC 〈新인간시대〉로 방송에 입문해 〈북극의 눈물〉, 〈휴먼다큐 사랑-너는 내 운명〉, 〈안녕 아빠〉 등 1백여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누구보다 바쁜 워킹맘이었던 그는 풀빵엄마를 만난 뒤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음을 깨달으면서 지난해부터 일을 줄이기 시작해 현재는 〈휴먼다큐 사랑〉에만 집중하고 있다.

"해마다 가정의달 5월에는 사람들이 〈휴먼다큐 사랑〉을 보고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매번 암으로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냐, 희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어떤 사랑도 가족의 죽음을 앞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홀로 떠나야 하는 이들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죽음 앞에서의 사랑과 비교가 될까요. 〈휴먼다큐 사랑〉은 보통 사람들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진짜 사랑을 그리려고 해요."

죽음 앞에서의 사랑은 흉내 낼 수 없는 진짜 사랑

노 작가는 이달 방영되는 총 네 편 중 두 편을 맡았다. 하나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임신부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원인 모를 출혈로 대부분의 장기를 잘라낸 채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네 살배기 아이 이야기라고 한다. 해마다 〈휴먼다큐 사랑〉을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옆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듯,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 온 노경희 작가. 그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다.

"사랑은…, 연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부 간에도 '피곤해' 하고 말하면 '너만 피곤하냐'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래, 당신 정말 수고가 많아. 피곤하겠다' 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를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잘해 줘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고,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곧 사랑으로 표현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측은지심,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큰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G

글·김유림 (여성동아 기자)

"현장에 답이 있다"… 탁상행정 틀 벗다

문화부, 매주 문화예술 종사자들과 '예술의 산업적 발전방안' 포럼 열어

매주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아침은 분주하다. 더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포럼'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0일에는 '예술의 산업적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그 두번째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박선규 제2차관을 비롯한 문화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뛰는 송승환(한국뮤지컬협회 회장), 박명성(신시컴퍼니 대표), 조행덕(악어컴퍼니 대표), 서도식(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도현순(현대갤러리 전무), 마영범(디자이너)씨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는 박용재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가 맡았다.

"답은 현장에 있다. 그동안의 문화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소홀했다"는 박선규 2차관의 인사말로 두번째 문화체육관광 포럼의 문이 활짝 열렸다. 박선규 2차관은 매주 진행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문화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귀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회의실을 꽉 채운 현장의 열기와 함께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문화부 김영산 예술정책관은 "소비자들의 문화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예술과 문화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로 구분되는 것처럼 동일 장르 내에서도 예술성과 대중성이 혼재되고 있다"며 예술과 문화산업 경계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의 '응용예술영역'과 '예술의 산업적 활용영역'에 대한 정책의 부재를 고민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김 예술정책관은 '공연'과 '시각·조형'의 두 분야로 나누어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응용예술'과 '산업적 활용' 영역 정책 부재 고민

우선 공연 분야에서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앤드의 예를 들었다. 흥행 성공 시 높은 수익과 장기 공연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 공연시장은 매년 19퍼센트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콘서트와 뮤지컬이 전체의 80퍼센트를 차지한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효과와는 달리 외국과 비교하면 전체 공연시장 규모가



'문화체육관광 포럼' 두번째 주제는 '예술의 산업적 발전방안'이었다. 이번 포럼에서 각계 대표들은 '예술의 산업적 발전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으며 공연수, 입장권 판매량 및 수입액 등 객관적 정보 부족에 따른 정확한 공연시장 산출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경쟁력 있는 국내 창작 작품을 육성하고, 공연예술산업 육성 방안 구축과 함께 '창작 및 제작, 유통, 해외수출, 관광객 유치' 등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시각·조형 분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내 미술시장은 10년을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해외에 국내 미술 관련 정보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부는 "기업의 미술품 구매 세제 혜택 확대와 온라인 가상 미술관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포럼에 참가한 송승환 한국뮤지컬협회장(왼쪽)이 박선규 차관에게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예술정책관의 발제가 끝나고 박용재 대표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첫 토론자는 송승환 한국뮤지컬협회장이었다.

송승환 회장은 "생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다. 소극장 중심의 대학로 현실을 언급하며 "그곳에서 뮤지컬, 연극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과 창작 공연 지원을

"모태펀드가 운용 중이긴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구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했다.

이어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는 "라이선스를 사서 하는 외국 공연의 경우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며, "이제는 우리 순수 창작 공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행덕 악어컴퍼니 대표는 "대학로 연극은 열악한 환경에도 약 2백억원의 매출과 5천8백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지만, 대학로 지리적 환경의 특성상 높은 임차료와 대관료로 공연 관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로 문화특구 지정'에 관한 법을 제정해 대학로를 문화마을로 탈바꿈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미술 공예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서도식 서울대 시각 디자인학과 교수는 대중이 공예에 관한 용어를 잘못 쓰는 등 공예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독일을 예로 들면서 "현대적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현대에 맞는 공예품 생산을 추구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현대 기술을 익히는 게 쉽지 않은 전통장인들을 위해 정부의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영범 디자이너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이제는 '왜 우리 문화가 우수하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그 이유를 찾아내 보완하는 것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전통장인들이 현대적 기술 배우도록 도와야

마지막으로 도현순 현대갤러리 전무는 "예술의 수요와 유통, 공급에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예술 산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포럼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됐다. 그만큼 토론자들은 공연·예술 분야와 관련해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들은 이날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했고 관계자들은 그들의 의견에 귀기울였다.

'남의 충고를 달갑게 받아들여라'라는 공자의 말이 있다. 이날 열린 '예술의 산업적 발전 방안' 포럼은 현장에서 직접 뛰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예술 산업 발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됐다. '문화체육관광 포럼'은 매주 금요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속된다. G

글과 사진·정병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3학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은 참신한 시각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이슈, 정책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현재 6기 10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의 열정 넘치는 이야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블로그 도란도란문화놀이터(culturenori.tistory.com)에서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다.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재학 중인 고산씨

"넓은 세계 나오니 도전할 게 많아요"

한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발된 고산씨. 그는 지금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고산, 그리고 그의 의지에 공감하는 수많은 젊은이가 만들어나갈 첨단과학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에 가슴이 떨린다.

지금 방송가에는 서바이벌 열풍이 불고 있다. 수차례의 탈락을 거치는 동안 벌어지는 드라마는 대중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기억나는 또 하나의 서바이벌이 있다. 2006년 단 한 명을 뽑는 '한국 최초 우주인 선발대회'. 총 3만6천명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려, 그 결과 고산(34)씨가 선발됐다.

필자가 그를 다시 만난 건 지난해였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여행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조금의 아쉬움도 없어 보였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꾸고 있었다.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지나간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갈무리하며, 일말의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그의 모습에서 과학의 미래를 읽어낼 수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발된 고산씨는

현재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재학 중·서울대 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 석사
개인미디어 http://www.cyworld.com/ko_sa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인으로 선발됐을 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일제의 수탈과 전쟁의 상처로 완전히 초토화됐던 우리 조국이 이제 우주인을 배출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제가 한국 최초의 우주인에 선발되어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만큼 많은 것을 배워서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몇 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우주인을 배출하였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아직 완벽한 우리 기술은 아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차근차근 우리의 기술을 쌓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미국이 달에 닐 암스트롱을 착륙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기술에 대해 자부심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날이 꼭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주인 훈련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훈련과정 중 어려운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주인 훈련과정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러시아어를 마스터하고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배우고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말에도 숙소에 남아서 러시아어 단어를 외우고 우주비행 교재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4개월 정도 외출을 전혀 하지 않고 훈련소와 훈련소 내의 숙소만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함께 와 있던 말레이시아 우주인과 모스크바 시내에 잠깐 나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주인 훈련기간 중에 생긴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훈련 중 NASA(미 항공우주국)를 10일 정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

습니다. 그때 우주선에 탑승하게 될 멤버들과 함께 세계 각국 언론에서 온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우주에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한의 흙과 북한의 흙을 가져가서 우주에서 섞고 싶다고 했어요. 분단된 우리 상황과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함께 가기로 했던 러시아 우주인이 제게 와서 경의를 표하면서 처음으로 'Cosmonaut'(우주인)으로 불러주더군요. 그전에는 우리를 우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비행참가자', '과학우주인' 등의 이름으로 부르곤 했었는데, 그날 인터뷰를 듣고 정말 심각하게 제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인인 것을 느끼게 되었나 봅니다."



고산씨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진학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우리 과학기술정책에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케네디 스쿨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 진학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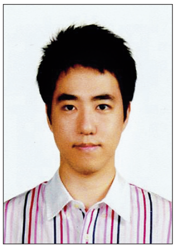
"러시아에서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간에 분명 확연한 경계가 존재하고 개별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과학기술력을 키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밝은 미래를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별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전체 국가 과학기술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학기술 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진학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우리 과학기술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거나,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이곳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하다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전후 잿더미에서 시작하여 짧은 시간 내 일구어낸 기적과도 같은 경제성장, 성공적인 민주화 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 드는 생각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세대가 이뤄낸 것이고 온전히 그들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세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G20세대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세대의 역할은 부모님, 선배들이 마련한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 더 단단하고 싱싱한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들의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해답을 기업가 정신에서 찾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세계에 출사표를 던져보는 것이 G20세대가 담당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지 못했던 무한한 가능성이 그곳에 있습니다. 게다가 넓은 세계에서의 보다 다양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취업전쟁 등 제한된 국내의 여건 속에서 고민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보따리 장사라도 시작해 보라' '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G



글 · 김재혁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박사과정 · nasabolt@kasi.re.kr)

문화예술 교육이 개인과 지역을 바꾼다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29일까지 전국 16곳서 펼쳐져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통해 발표된 '서울 어젠다'를 토대로 한 문화예술교육 축제인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이 시작됐다.

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구로아트밸리, 홍대, 광화문 및 전국 16개 시도 등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세미나, 워크숍, 지역별 축제 등 1백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주간행사의 주제는 '천개의 시선, 천개의 삶'이다. '서울 어젠다'의 주요 내용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실천'과 관련해 문화예술교육이 다양한 개인의 삶과 지역문제에 해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5월 23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열린 콘퍼런스에는 미국의 빌리 왕, 일본의 오카베 도모히코가 해외 연사로 초청됐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천개의 시선, 천개의 삶'은 전국 16개 시도별 행사장에서 세미나, 워크숍, 지역별 축제 등 1백여 개의 프로그램을 펼쳐놓는다. 사진은 노리단의 거리 퍼포먼스 모습.

'천개의 시선, 천개의 삶' 주제로 1백여 프로그램 진행

워크숍 프로그램으로는 피라미드 창작 워크숍, 서바이벌, 마임 워크숍, 다문화 어머니가 읽어주는 세계동화, 이야기 해결단 워크숍 등이 있다. 이야기 해결단 워크숍은 5월 28일 오후 2시 구로아트밸리 야외 워크숍 공간에서 열린다. 이는 책을 응용한 스토리텔링과 움직임 등을 활용해 문제해결 능력과 소통감수성을 일깨우는 창작활동이다.

지역 프로그램은 경기, 강원,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5월 27~28일 개최되는 '남양주 마을축제'는 경기도 인근 개발지구에서 열리는 생태, 주거환경 문제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이다. 5월 26일 춘천문화재단 창작공간에서는 '강원 문화예술교육 현주소와 미래를 묻다' 포럼이 열린다. 강원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사례를 점검하고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주제다.

대구 뽕나무골목에서는 5월 26일 '1천개의 골목, 1천개의 이야기-뽕나무골목편'이 펼쳐진다. 이는 독립운동가와 문인들의 생가를 방문하고 그 느낌을 바탕으로 짧은 글짓기를 하는 시 창작 프로그램이다. 또 부산 경성대 콘서트홀에서는 5월 29일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가 열리고, 전북 김제시 검안동에서는 5월 26일 '에코서클-상상놀이터'가 개최된다.

광주 무등현대미술관에서는 5월 28일 '가족문패의 영광'이 열린다. 이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문패의 특성과 기능을 알아보고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자신만의 가족문패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5월 29일 폐막식에서는 '2011 문화예술교육 정책비전'이 발표되고 1천명이 입을 모아 함께 부르는 '천명의 아카펠라' 공연이 펼쳐진다.

글 · 서일호 기자

문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02-6209-5954 www.arteweek.kr

장관은 피아노♬ 차관은 바이올린♪

코스타리카 오브레곤 문화부 장관, 서울서 친환경 콘서트

생태 환경국가로 불리는 코스타리카의 자연은 어떤 소리를 낼까. 지난 5월 18일 서울 삼성동 올림푸스홀에서 코스타리카의 자연과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진 '친환경 콘서트'가 열렸다.

공연 테마는 '자연과 사람, 음악의 공존'으로 코스타리카의 자연과 문화를 표현한 곡들로 구성했다. 특별히 공연에는 코스타리카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영상을 배경으로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협주가 울려 퍼졌다. 짙푸른 열대우림의 모습과 새, 원숭이 등 자연의 소리가 담긴 영상과 함께 즐기는 연주회는 마치 열대우림 한가운데서 음악을 듣는 듯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은 코스타리카 문화부 장관과 차관이 직접 협연해 의미가 더욱 깊었다. 마누엘 오브레곤 문화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다. 이반 로드리게스 문화부 차관 역시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다. 두 사람은 중남미의 유명한 7인조 재즈음악 밴드 '말파이스(Mal pais)'의 창설 멤버이기도 하다.

오브레곤 장관은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연주회를 가지며 코스타리카의 자연과 음악을 알려 왔다. 코스타리카는 중미의 선진 환경국가로 대표된다.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이 세계 2위일 정도로 많다. 오브레곤 장관은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속음악과 함께 새, 원숭이, 화산 등 자연생태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며 자연보호가 하나의 풍습이라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

서울에서 코스타리카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영상을 배경으로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협주가 울려 퍼졌다. 오브레곤 장관이 피아노를, 로드리게스 차관이 바이올린을 맡아 자연과 하나된 조화로운 연주를 선사했다.

가야금·대금에 맞춰 아리랑 깜짝 연주도

이번 공연에는 자연과 함께 살아온 코스타리카인들의 특성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전곡 모두 오브레곤 장관이 직접 작곡한 것으로, 가끔 악기 소리인지 자연의 소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연주가 조화로웠다.

오브레곤 장관은 한국인에게 특별히 들려주고 싶은 곡으로 멸종된 황금 두꺼비를 추모하는 '레퀴엠(Requiem)'을 꼽았다. 그는 "두꺼비와 숲이 없어지면 인간 그리고 문화까지 없어지게 된다"며 "이 곡을 통해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한국인에게 널리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방한한 오브레곤 장관은 한국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인상에 대해 "선진화된 한국 문화가 인상적이고 한식도 맛있다"고 말했다. 공연 마지막에는 한국의 가야금·대금 연주자와 함께 '아리랑'을 깜짝 연주하기도 했다.

코스타리카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나라지만 평화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비슷했다. 오브레곤 장관은 "코스타리카는 아프리카, 유럽 등의 영향을 받아 문화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싶다"며 "2012년 한·코스타리카 수교 50주년을 맞아 내년에 개최 예정인 '국제문화제'에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G

글·이제남 기자



태조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치고 잔치를 벌였다는 오목대에서 바라본 전주 한옥마을의 모습.

전주 한옥마을

골목마다 박물관 · 체험관 걷다… 구경하다… 하루가 짧네!

전주시 풍남동과 교동 일대에 있는 한옥마을은 예향 전주의 멋과 풍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한옥 사이로 난 고샅길을 거닐다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든다. 다양한 체험시설도 들어서 있어 이 골목 저 골목 기웃거리다 보면 하루가 짧다. 조선시대 3대 음식의 하나로 꼽히는 전주비빔밥, 담백하면서도 산뜻한 맛을 자랑하는 콩나물국밥도 맛보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경기전은 조선왕조의 고향과 같다.



전주전통술박물관에 전시된 술관련 유물.

전주 풍남동과 교동 일대 한옥마을은 전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다. 7백여 채의 한옥이 모여 있는데 한나절 여유롭게 거닐며 예향 전주의 멋과 풍류를 느껴 보기에 모자람이 없다.

한옥마을의 유래는 1910년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주 서문 근처에서 행상을 하던 일본인들이 중앙동 일대로 진출하고 상권을 차지하게 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들이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한옥마을이 만들어졌다.

한옥마을을 그저 기와집들의 집단지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각종 전시시설과 박물관, 체험관 등이 있어 꼼꼼히 돌아보려면 하루가 족히 걸린다. 여행의 시작은 경기전(慶基殿)이다. 조선왕조의 고향과 같은 이곳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임금의 영정)을 봉안한 곳으로 태종 10년(서기 1410년) 창건됐다.

경기전 뒤로 최명희문학관과 전통술박물관

경기전의 태조 어진은 몇 차례 수난을 겪기도 했는데 인조 14년(1636년) 병자호란 때는 무주의 적상산성으로 옮겨졌고, 영조 43년(1767년)의 정해대재 때는 명륜당으로 옮겨졌다. 고종 31년(1894년) 동학혁명 때는 완주의 위봉산성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현재 경기전의 어진은 고종 9년(1872년)에 다시 그린 것이다.

경기전은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궁궐식으로 지은 건물이기도 한데,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李翰)과 시조비, 경주김씨의 위패가 봉안된 조경묘와 예종대와 태실비 등이 있다. 경기전 정문 앞 하마비에는 "지차개하마 잡인무득입(至此皆下馬 雜人毋得入)"라고 쓰여 있다. '이곳에 이르는 자는 계급의 높고 낮음, 신분의 귀천을 떠나 모두 말에서 내리고 잡인들은 출입을 금한다'는 뜻이다.

경기전 뒤로는 교동아트센터와 최명희문학관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교동아트센터는 갤러리와 세미나실 등을 갖춘 2층짜리 아담한 건물로 각종 예술 관련 행사와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예술인들이 직접 들어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최명희문학관은 〈혼불〉로 널리 알려진 소설가 최명희(1947~1998)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곳이다. 그의 육필 원고를 비롯해 작가의 다양한 유품을 전시하고 있어 1년 내내 문학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옥마을에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많다. 그중 전주전통술박물관은 호남 유일의 전통술 전문박물관으로 향토주를 마셔 보고 살 수 있는 곳이다. 술박물관과 가까운 곳에 자리한 전주한옥생활체험관은 양반집에 하룻밤 머물며 공예와 다례 등 전통생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전국에 숙박시설로 활용되는 수많은 고택이 있지만, 규모나 시설 면에서 으뜸인 곳은 전주한옥마을이다. 한옥생활체험관 외에도 마지막 황손 이석이 살고 있는 승광재를 비롯해 동락원, 학인당, 아세헌 등 모두 9곳에서 한옥숙박체험을 해 볼 수 있다. 한옥마을이 초행이라면 경기전 앞이나 한국전통공예전시관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들러 한옥마을 안내지도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옥마을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은 고샅길을 따라 느긋하게 걷는 것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전동성당은 영화 〈편지〉의 촬영 무대로도 유명하다.

옹기종기 처마를 맞댄 한옥마을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오목대에 올라 보자. 전주공예품전시관 맞은편으로 난 나무계단을 따라 10여 분 오르면 된다. 이성계가 고려말 우왕 6년(1380년) 남원 황산에서 왜적을 무찌르고 돌아가던 중 자신의 조상인 목조가 살았던 이곳에 들러 종친들을 모아 잔치를 벌였던 곳이다. 이곳에서 이성계는 한나라 유방의 시를 읊으며 나라를 세우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고 한다.

영화 〈편지〉의 촬영 무대 전동성당

전주향교도 가까우니 꼭 찾아보자. 중국 7현과 동방 18현 등 50인의 유학 성인의 위패를 모신 큰 규모의 향교다. 우리나라에서 온전히 보존된 향교 가운데 으뜸이라고 한다.

전주향교는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애초 경기전 옆에 있었으나, 한차례 외곽 이전 뒤 1603년 현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향교 내에는 다섯 그루의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향교 내 서문 앞 은행나무는 수령이 4백년이나 된다.

경기전 맞은편에 전주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인 풍남문이 있다. 고려 공양왕 때인 1389년 처음 창건되었는데 당시 전주부성을 쌓으면서 4대문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졌다.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남대문과 같은 형태적 특징을 보인다. 1905년에 동, 서, 북문은 철거되고 남문만이 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풍남문은 선조 30년(1597년) 모두 불타버렸는데 현재의 모습은 1978년에 복원된 것이다. 보물 제308호다.

부드러운 곡선의 지붕들로 가득한 한옥마을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아름다운 서양식 건물이 눈에 띈다. 전동성당이다. 1914년 보두네 신부가 지었는데 성당의 기초는 전주 시내 성문과 성벽이 헐리면서 나온 돌과 흙을 사용했으며 설계는 서울 명동성당을 설계했던 포와넬이 맡았다. 비잔틴풍의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구한말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던 때, 전주는 호남 지역의 천주교도들의 중심지였다. 많은 사람이 탄압으로 피를 흘렸던 역사의 중심에서 전동성당은 한국 최초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윤지충과 권상연을 기리기 위해 이들이 피를 흘린 순교터에 세워졌다. 한때 영화 〈편지〉의 촬영 무대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성미당의 전주비빔밥.


왱이집의 콩나물국밥.

전주는 조선시대부터 한지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교통이 편리하고 한지의 원재료인 닥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경상도와 함께 한지의 70퍼센트 이상을 생산했다고 한다. 전주한지박물관은 한지공예품과 한지제작도구, 고문서, 고서적 등 한지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곳으로, 한지제작 체험도 즐길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한지 관련 특별전을 열고 있어 방문해 볼 만하다.

모주 곁들인 콩나물국밥은 담백하고 얼큰

전주는 먹을거리도 풍성하다. 대표음식이라면 단연 비빔밥. 비빔밥은 전주와 진주, 해주의 것이 유명한데 이 중에서도 전주비빔밥은 한 단계 높은 자리를 차지해 평양의 냉면, 개성의 탕반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음식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놋쇠 대접에 담긴 흰밥과 그 위에 그림처럼 올려진 선홍빛 육회, 아삭한 콩나물, 얌전하게 부친 황백지단과 치자 물들인 청포묵 등을 보고 있노라면 비비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콩나물과 밥을 넣고 갖은 양념을 곁들인 전주콩나물국밥은 담백하고 얼큰하면서도 산뜻한 맛이 특징. 애주가들의 해장거리로 사랑받고 있다. 또 콩나물국밥과 함께 곁들여 마시는 모주는 막걸리와 한약재, 흑설탕을 넣고 끓여 텁텁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낸다. 남부시장 근처에 콩나물국밥거리가 있다. G

글과 사진 최갑수 (시인·여행작가)

여·행·정·보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전주 IC로 나온다. 한옥마을 주변에 경기전과 전동성당, 풍남문이 있다. 경기전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 주차 후 도보로 여행하는 것이 편하다.

잠잘 곳 **한옥생활체험관**(063-287-6300), **승광재**(063-283-0071, www.royalcity.or.kr), **동락원**(063-287-2040, www.jkhanok.co.kr) **아세헌**(063-287-1677, www.kiwahouse.com) 등에서 한옥체험을 할 수 있다. 한옥마을과 중앙동 주변에 **전주코아리베라호텔**(063-232-7000, www.core-riviera.co.kr) 등 호텔과 모텔이 있다.

먹을 곳 전주비빔밥은 **성미당**(063-284-0029)과 **가족회관**(063-284-2884) 등이 유명하다. 콩나물국밥은 **삼백집**(063-284-2227)과 **왱이집**(063-287-6980) 등이 전통있는 집으로 꼽힌다. **백번집**(063-286-0100)과 **전라회관**(063-228-3033)의 한정식도 유명하다.



편백나무 '치유의 숲'을 아시나요

전남 장성 축령산에 10.2킬로미터 숲길… 면역력 높이는 '피톤치드' 풍부

하늘을 향해 시원스럽게 쭉쭉 뻗은 나무들,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 숲이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의 숲'으로 거듭난다.

산림청은 4월 28일 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일대의 축령산 편백나무 숲 안내센터에서 '장성 치유의 숲' 개장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축령산의 편백림 조림지는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일대에 2백58헥타르에 분포돼 있다. 천연림이 전체 숲의 29퍼센트, 인공림이 71퍼센트로 이뤄져 있다.

편백나무 인공림은 1987년 타계한 뒤 2005년 축령산 숲 13년생 느티나무 아래 수목장을 지낸 조림가 고(故) 임종국 선생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축령산 일대를 1956년부터 20여년간 사재를 털어 조성한 숲이다. 2002년 정부에서 이 숲의 가치를 인정하고 국유림으로 매입해 관리하고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편백나무들이 만들어 내는 시원스런 정경과 함께 피톤치드의 상쾌한 향기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어 지난해에만 7만여명이 찾아올 정도로 이미 인기를 끌고 있다.

장성 편백나무 숲이 '치유의 숲' 개장 전부터 각광을 받아 온 것은 바로 이 피톤치드 덕분이다.

북쪽 끝자락 마음씻는 '세심원'도 유명

피톤치드는 식물이 병원균, 해충, 곰팡이에 저항하기 위해 내뿜거나 분비하는 물질로, 사람이 공기 중에 있는 피톤치드 성분을 호흡해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장과 심폐기능이 강화되며 살균작용이 이뤄진다. 특히 편백나무는 피톤치드 발산량이 가장 많은 나무로 꼽히고 있다.

개장을 앞두고 장성 치유의 숲은 '하늘', '산소', '숲내음' 등 건강 테마별로 총 10.2킬로미터의 치유 숲길을 조성했다. 또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 안내센터 1동, 산림치유필드 1곳, 전망대 2곳, 안내소 2곳, 화장실 4곳, 쉼터 50곳, 편백칩로드 1곳, 습지데크 2개소 등을 갖췄다.

축령산 '치유의 숲' 북쪽 끝자락에 있는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금곡마을 '세심원(洗心院)'은 마음을 씻고 가는 곳으로 유명하다.

산림청의 '치유의 숲' 은 지난 2009년 문을 연 경기도 양평의 산음 치유의 숲이 처음이며, 장성 치유의 숲이 두번째. 올해 중 강원도 횡성의 숲체원이 세번째 치유의 숲으로 재단장한다. 글 · 박경아 기자

문의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042-481-4124 www.foreston.go.kr
장성 치유의 숲 ☎061-393-1777 / 산음 치유의 숲 ☎031-774-8133
횡성 숲체원 ☎033-340-6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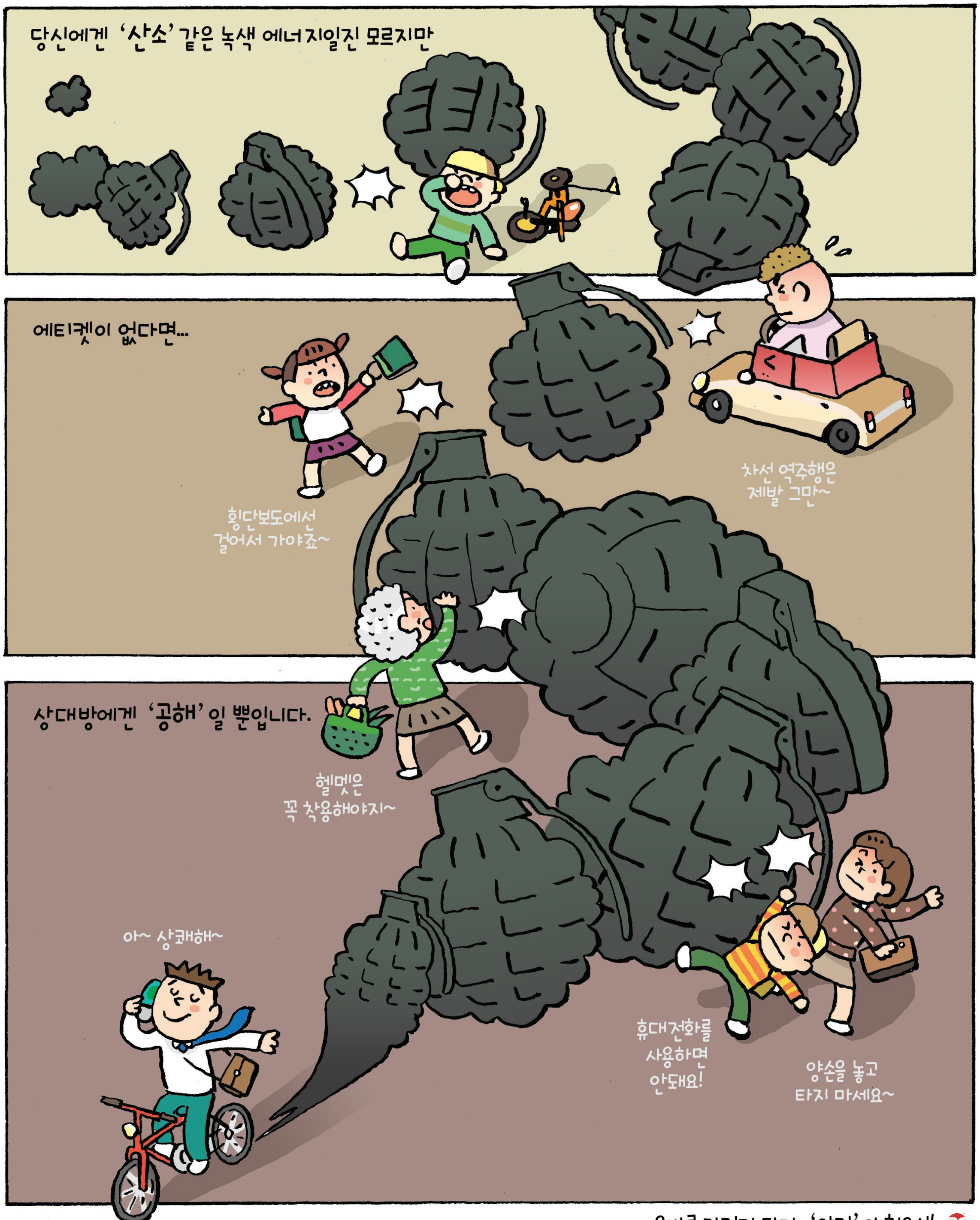


이도웅

축령산 자락 끝에 위치한 세심원(洗心院). 말 그대로 마음을 씻고 가고자 하는 이들이 찾는다.

자전거 공해(?)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붓다의 치명적 농담〉

내가 아는 세상은 편견·욕망의 '매트릭스'



한형조 지음
문학동네 펴냄 · 1만9천8백원

공부하다 보면 무척 오묘하고 복잡한 철학이나 종교도 결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싶어진다. 모든 지혜의 글들은 결국 주체와 세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나와 객관적인 현실이 조화를 이룬다면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삶은 대체로 억압 받고 불행하다고 여긴다.

내 뜻대로 현실이 움직여주지 않아서다. 또는 세계가 나의 뜻과 가능성을 억압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나를 바꾸든지 세계를 엎어 버리든지. 앞에 해당하는 말이 명상이나 수련일 터이고 뒤에 걸맞은 말이 변혁이나 혁명이 될 터이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주체와 세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철학이나 종교가 말한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의 구성원들이 현실세계를 바꾸기 위해 헌신하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그 세계와 화해하기 위해 자기성찰을 통해 개인적 변화를 꾀하는 시대가 있다. 철학이나 종교를 너무 단출하게 요약한 느낌은 있지만, 이 틀로 세상을 보는 것도 꽤 유용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형조가 쓴 불교개론서인 〈붓다의 치명적 농담〉도 앞에 말한 관점으로 볼 만한 책이다. 〈금강경〉을 본격적으로 해설하기 전에 일종의 지적 에피타이저로 쓴 이 책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다. 내가 아는 세상은 객관현실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편견이 만들어낸, 일종의 매트릭스라는 점이다.

한형조는 이를 "한 개인이 익숙하게 보고 들은 정보, 그가 속한 그룹 안에서의 관행과 어법, 그가 의존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이라 말한다. 흔히 하는 말대로 불교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는, 온 세상이 그 색깔이라 여긴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파하고 아등바등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다 여기서 비롯된다고 보는 셈이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내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을 스스로 왜곡해서 수용하고 있다는 말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불교의 그 넓고 깊은 세계로 들어설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지은이의 생각인 듯싶다. 그리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기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니 서둘러 책을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거듭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은이가 보기에 불교의 고갱이는 단순하다. 객관적인 세계가 실은 '인간에 의해 구성된 세계' '주관적으로 의미화되어서만 존재하는 무엇'임을 화들짝 깨달으면 된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이 주술에서 풀려나야 나와 세계의 관계가 바뀔 수 있다고 여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다. 주관적인 환상과 욕망에서 벗어날 적에 비로소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네가 세상과 다툼을 그치면, 세상은 고요해질 것"

더불어 불교는 "자기 관심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주관적 편견과 몰이해를 탈각한 객관, 즉 진정 그러하게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를 향해 정진해 나아가도록" 권한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네가 이 세상과 다투는 것을 그치면, 세상은 다시 고요해질 것이니. 그때 진정 세상이 이미,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터이다.

지은이는 연기법과 화엄을 설명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한다. 불교는 "서로 연관된 객관적 사실의 세계"를 보여주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이 말은 신영복의 〈강의〉에서도 나온 바 있는 동양철학과 종교의 현대적 가치다. 불교가 '오래된 미래'일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노장을 전공하고 유학을 공부한 이가 불교 책을 썼으니, 이야말로 동양학의 융합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그의 문체가 어찌나 화려하든지 어려운 내용을 술술 읽어나가게 하는 힘이 있다. 주자가 불교에서 받은 영향이나 장자와 불교의 유사점을 파악해 설명하는 대목도 흥미롭다.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작은 길이 하나 열렸다. G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얼굴 찡그리는 당신에게...



진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다. 마음과 사고방식을 바꾸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 수전 제퍼스 (미국 심리학자)

"신파면 어때!" 그리운 엄마… 아빠…

연극 **〈친정엄마〉〈친정엄마와 2박3일〉〈엄마를 부탁해〉 가족연극 삼두마차**

가정의 달을 맞아 공연장을 찾는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가족연극'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가족의 소통과 화해를 다루는 가족연극은 비단 5월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전국적으로 고정 관객층을 몰고 다니는 스테디셀러 연극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런 가족연극 붐의 중심에는 사그라지지 않는 '엄마 신드롬'이 있다. 〈친정엄마〉를 비롯해 〈친정엄마와 2박3일〉, 〈엄마를 부탁해〉 등 이 작품들은 지금의 가족연극 전성기를 이끈 삼두마차다.

2007년 고두심 주연으로 초연된 〈친정엄마〉는 '엄마 열풍'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고혜정 작가의 동명 수필을 무대화한 이 작품은 엄마와 딸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희생과 헌신으로 점철된 엄마의 운명을 극대화시킨다. 엄마에게 찾아온 병마로 모녀는 이별을 하게 되고, 홀로 남은 딸은 후회의 눈물을 쏟아낸다. 전형적인 신파극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이야기는 언제나 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

평범한 이야기에서 비범한 감동을 이끌어낸 〈친정엄마〉의 힘은 이후 계속해서 다른 작품으로 옮겨갔다. 2009년에는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로, 지난해에는 동명 영화와 뮤지컬로도 변주되며 엄마 열풍을 전국에 퍼트렸다.

지난해 초연 무대를 가진 연극 〈엄마를 부탁해〉는 최루성 많은 작품들과는 달리 감정의 완급조절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소설가 신경숙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엄마가 사라진 후 온 가족이 엄마를 찾아나서고, 그 과정에서 엄마이자 아내였던 한 여자의 인생을 고민하게 한다.

엄마의 존재를 새롭게 부각시킨 이 작품은 최근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공감 가는 가족애를 이야기한다.


조선DB
〈친정엄마와 2박 3일〉


조선DB
〈엄마를 부탁해〉


조선DB
〈친정엄마〉

연극 **실제로 아들 잃은 이광기 〈가시고기〉 캐스팅**

한편 이제까지 가족연극의 흐름을 주도해 온 것이 '엄마'였다면, 최근엔 남편이자 아버지가 가족연극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현재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시고기〉는 가슴 시린 부성을 이야기하는 연극이다. 3백만 부 이상 팔린 조창인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무대로 옮긴 이 작품은 백혈병과 싸우는 어린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담고 있다. 특히 아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려는 아버지 역에 배우 이광기가 캐스팅되어 연기 이상의 감동을 예상케 한다.

이처럼 신파에 가까운 내용의 가족연극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현대인들이 위로와 소통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족연극이 모든 세대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이처럼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감성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연극은 고립되고 단절된 가족 구성원이 서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G

글 · 송준호 (주간한국 기자)



클래식 **푸치니 〈나비부인〉** 〈나비부인〉은 1900년대 일본 메이지 시대를 배경으로 미국해군 중위 핑커톤을 향한 일본여성 나비부인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어 기울어진 집안을 위해 게이샤가 된 15세 소녀다. 핑커톤이 나비부인과 결혼했는데, 귀국 후에는 케이트와 다시 결혼을 한다. 다시 일본으로 온 핑커톤은 나비부인이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시 6월 24~26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27만원 R석 22만원 S석 18만원 A석 12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399-1700


조선DB

콘서트 **성시경 콘서트 '처음'** 2000년 데뷔한 가수 성시경은 '처음처럼' '넌 감동이었어' '거리에서' '안녕 나의 사랑' '그대네요' 등 주옥같은 노래를 불러 소녀 팬들은 물론 주부 팬들에게도 인기를 얻었다. 군 입대 전이었던 2008년 6월에는 6집 앨범 〈여기, 내 맘속에〉를 발표했다. 이번 콘서트 '처음'의 총감독은 선배 가수인 김장훈이 맡는다. 그동안 '완타치' '원맨쇼' '노쑈' 등의 공연을 총지휘해 온 김장훈은 거대한 스케일과 재기발랄한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 왔다.

일시 5월 28~29일 **장소**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관람료** VIP석 12만1천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 **문의** 1544-1555


조선DB

뮤지컬 **하이테크 뮤지컬 〈원효〉** 하이테크 뮤지컬을 표방하는 〈원효〉는 신라의 고승 원효(617~686)의 일대기를 그렸다. 파계를 불사하고 운명적 사랑을 선택하는 원효와 공주의 신분으로 원효를 사랑하는 요석, 권력과 사랑을 좇아 증오를 키운 대토의 이야기를 담았다. 정통사극이 아닌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표현기법을 사용했다. LED영상으로 구현한 황룡사 9층 목탑 등 전통과 현대가 만난 무대디자인으로 관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지훈, 선우, 김아선, 서지훈 등의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한다.

일시 2011년 6월 12일까지 **장소**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관람료**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89-4883

공연소식

공연	장소	날짜	문의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 바레카이	잠실종합운동장 내 빅탑	5월 29일까지	1566-1369
뮤지컬			
메노포즈	순천문화예술회관대극장	6월 4~5일	061-650-3385
그리스	한전아트센터	6월 12일까지	1588-5212
브레멘 음악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5월 29일까지	1544-5955
오즈의 마법사	유니버설아트센터	5월 29일까지	02-517-6334
연극			
5월엔 결혼할거야	광주기분좋은극장	6월 5일까지	1600-6689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10주년 공연	유시어터(청담동)	8월 28일까지	02-556-5910
내 이름은 김삼순	상명아트홀 1관	5월 31일까지	02-764-8760
최정원의 연극 〈피아프〉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6월 5일까지	02-2230-6600
극적인 하룻밤	컬처스페이스 엔유	6월 1일까지	02-764-8760
콘서트			
2011 조용필&위대한 탄생 전국투어 콘서트	의정부종합운동장	6월 4일	031-871-7004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6월 4일	031-783-8000
국내외 한센병 가족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 -그대 있음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월 28일	031-452-5655
클래식			
바바와 비비의 사랑이야기	용인시 문화예술원 마루홀	5월 28~29일	031-324-4549
브루크너 교향곡 7번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5월 28일	02-399-1700
무용			
대한민국발레축제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6월 18일	02-587-6183
김덕수의 전통연희상설공연 〈판pa : n〉	전통연희상설극장 광화문아트홀	오픈런	02-722-3416

5월 셋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5월 8일~5월 14일

곡명	가수
1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박정현
2 Lonely	2NE1
3 Ma Boy	씨스타19
4 No.1	이소라
5 Don't Cry	박봄
6 피노키오(Danger)	f(x)
7 Golden Lady	임정희
8 비가 오는 날엔	비스트
9 빈잔	임재범
10 미련	김연우

통찰력 갖춘 독설이 그립다

김미경 아트스피치 원장

'독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오늘날… 우리 시대 큰어른의 가르침의 독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얼마 전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예상 외로 많은 트위터리안이 '리트윗'(해당 글을 자신의 트위터 친구들에게 알림)을 해주었다. 독설에 대한 피로감의 방증일까. 이제 독설가는 '공급과잉'이다. 유사 이래 최고라 할 만큼 이곳저곳에서 독설의 대향연이 벌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인터넷 검색창에 '독설'이라고 입력하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사가 올라온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가수, 개그맨, 연기자 등 주로 연예인들에게도 '독설가'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독설은 요즘의 대세와 잘 맞는다. 솔직해서 시원하고, 권위를 부정하거나 정곡을 찔러서 재미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TV나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시청자는 즐겁게 소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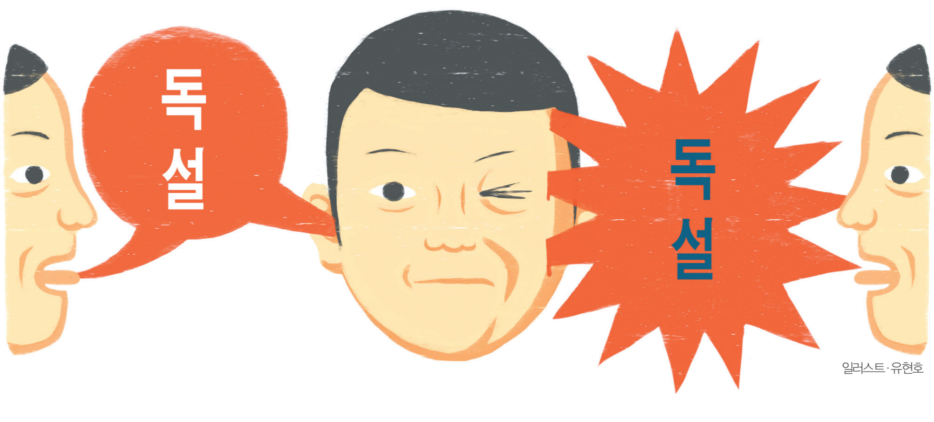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독설은 기본적으로 독성이 있는 말이다. 이는 마치 독약과도 같다. 어떤 독설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공격성과 파괴력을 갖고 있다. 물론 독 중에는 약이 되는 독이 있다. 봉침처럼 미량의 벌독은 관절염에 효과를 낼 수 있다.

독설은 공격성과 파괴력을 갖고 있다. 때론 선의로 독한 말을 굳이 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애정이나 열정만으로 독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가진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꿰뚫어보는 힘이 있어야 한다. 자칫 막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치료를 위해, 오랜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책임하에 시술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독설도 마찬가지다. 독한 말을 굳이 해야 한다면, 목적부터 분명해야 한다. 살다 보면 자식이나 친구 등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쓴소리를 꼭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애정이나 열정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독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관찰을 통해 얻은 통찰로 상대를 꿰뚫어보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가 가진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독설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조절할 것인가도 고심해 봐야 한다.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 수준의 독설을 한다면 그건 이미 '막말'이다.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독설은 괴롭힘일 뿐이다.

독설과 막말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경계가 무척이나 모호하다. 그러나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말일수록 대중은 열광한다. 때문에 독설은 가면 갈수록 더 자극적으로 변해간다. 그걸 보고 웃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미량의 독에 이미 중독돼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G



일러스트·유현호

천개의 시선, 천개의 삶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1,00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
구로구, 구로문화재단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사)한국문화의집협회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노리단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2011. 05. 23- 29

0,

共공 유 有
共공 감 感
共공 존 存

일시.
2011년 5월 23일(월)-29일(일)

장소.
서울 일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구로아트밸리, 홍대, 광화문 등)
전국 16개 시도별 행사장

홈페이지.
www.arteweek.kr

개막행사.
개막 컨퍼런스 및 워크숍
5월23일(월) 3:00- 5:00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외
+
지역행사.
지역프로젝트 및
마을 축제, 동아리 열전 등
5월23일~29일
전국 16개 시도별 행사장
+
폐막행사.
프리젠테이션 데이 및
워크숍, 폐막식
5월28일(토) 3:00- 5:3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복지소외계층 전국 일제 조사



보건복지콜센터(☎129) **시군구 · 읍면동 신고**

○ **기 간 : 2011년 5월 23일(월) ~ 2011년 6월 15일(수)**

○ **대 상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시군구·읍면동, 복지시설·단체 등의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사람**

-화장실, 창고, 움막, 공원, 지하철, 교각 부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실종 아동, 가출 청소년 포함)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경찰청